

내년도 사업, 성과산출형으로 변화 모색

서귀포시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로 하나 되는 행복도시 서귀포'란 비전을 설정하고 전략목표로 자원봉사 브랜드 구축, 자원봉사문화 확산, 자원봉사 활동 지원 전문센터로 육성, 구석구석 찾아가는 자원봉사로 내세웠다.

특히 내년도 사업계획은 그동안 나열식에서 벗어나 6개 분야 18개 세부 사업 수행계획과 산출목표의 값을 정함으로써 성과산출이 용이하도록 변화를 꾀했다.

《편집자》



사랑·나눔 자원봉사 참여 확산

〈참! 좋은 사랑의 밥차〉 무료급식 운영

매주 화요일, 서귀포 매일올레시장에서 서귀포시 관내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 250여 명에게 밥차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또한, 밥차에 투입되는 봉사자는 매주 20여 명이 수고해 주고 있다. 여기에는 IBK기업은행에서 2천7백만 원, 공무원연금공단에서 2천만 원, 기타 개인 및 단체에서 1천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고 있다.

찾아가는 해피투게더 행복밥차

기존 밥차 운영에서 탈피하여 읍면 마을 단위를 이동하며 운영하고, 홀로 지내시거나 외로운 어르신들의 만남의 시간 또는 즐길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함으로써 사랑을 나누는 이동식 밥차사업이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서 사업비 3천만 원을 후원하고 있다.

어려운 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전기안전시설 점검

어려운 가구를 읍면동이나 지역 거주 봉사단체로부터 추천받아 시행하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삶의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 주는 사업이다. 특히 여기에 투입되는 자원봉사자는 건축기술봉사자로 구성되어 전형적인 재능 나눔을 실천하는 모델이다.

지방보조금 2천5백만 원이 투입되고 있으며, 노후된 전기시설 안전점검 사업비는 3백만 원에 이르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 시대 언택트 봉사 전개

모다르릉 플로깅 범시민 운동 전개

전국 대비 서귀포지역 비만율이 최고조에 달함에 따라 서귀포시와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시민분들의 건강과 서귀포의 아름다운 경관을 지키기 위해 플로깅 활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자원봉사센터 역시 행정시책에 맞춰 건강과 환경, 봉사를 접목시킨 범시민 열풍으로 전개해 나가고자 쓰레기는 줄이고(-), 건강은 더하고(+), 봉사는 나누는(÷) 플로깅 운동을 매월 첫째 주 토요일과 마지막 주 토요일에 대대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다.

봉사하쇼, 좋은 수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일상에 큰 변화가 닥치면서 심리적인 위축과 함께 불안, 우울, 무기력한 감정을 느끼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어 코로나 우울을 해소하고 더 나아가 자원봉사자의 자존감을 높이는 감성적 자원봉사 프로그램이 절실해졌다.

이에 따라 자원봉사 관련 전반적인 이야기를 풀어낼 수 있는 인터뷰 대상을 섭외하여 자원봉사의 이야기를 발굴하는 한편, 자원봉사 인터뷰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촬영, 편집할 수 있는 전문적 기술 실천으로 전문 재능 나눔 실행하기 위해 영상미디어 봉사단을 양성하고자 한다.

연 6회 영상물을 제작하여 각종 SNS를 활용한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고자 한다.

자원봉사 물결운동 참여 확산

자원봉사 만남의 날 운영

한 해 동안 열심히 자원봉사활동과 아름다운 동행을 한 봉사자들의 몸과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장으로 진행되는 2만여 자원봉사자들의 축제이다.

내년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함으로써 자원봉사자들 간의 정보 교류의 장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주민주도형 자원봉사 공동체 프로젝트 「너영나영 훈디 멩그는 훈시를 놔지는 무슬」

서귀포시는 중소도시와 농어촌이 함께 공존하는 지역으로 특히 최근 이주민의 확산으로 마을별 상이한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마을별 맞춤형 해결방안이 필요하다. 따라서 문화·체육 행사 등 단순 자원봉사 참여 촉진에만 국한된 현 상황에서 벗어나 자원봉사자의 주도성에 관점을 둔 자원봉사 패러다임의 변화가 절실하다.

이에 따라 대정읍, 성산읍, 안덕면 3개 읍·면별 자원봉사 공동체를 구성하여 마을 구성원 누구나 관심 가질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실행을 실현하는 주민주도형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함께 투명할래?

2021, 2022년도 '함께 투명할래?' 사업추진 결과 자원순환에 대한 물질적 보상이 아닌 자원봉사실적(시간 및 활동 인증)을 투입함으로써 자원순환을 위한 자원봉사의 가치가 높아짐에 따라 고품질 자원순환을 위해 내년도도 지속사업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투명 페트병, 종이팩, 건전지, 헌 옷의 고품질 자원순환을 위해 '활동인증형' 자원봉사 인증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이 사업의 효과를 드높여 나갈 계획이다.

*투명 페트병: 2kg, 종이팩: 1kg, 건전지: 크기와 종류 상관없이 30개, 헌 옷: 10kg / 각 품목별 활동인증 1건 인증

차세대 리더그룹 육성 및 수요처 양성

다함께 미래로, 빛나는 청소년 GO! GO!

그동안 청소년(중·고등학생)에 극한된 리더 양성과정을 운영해 왔으나 단순 프로그램 형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점과 입시제도 변경 등으로 갈수록 참여도 저조되었다는 분석에 따라 청소년 교육사업을 새롭게 발굴했다.

이에 따라 청소년 자원봉사자 양성 교육활동은 매월 첫째 주 일요일에, 봉사활동(오프라인)에는 매월 넷째 주 일요일에 추진할 계획이다.

아는 것만 물어보삼

청소년 자살은 2016년 184명보다 2020년 236명으로 해마다 늘어가고 있다. 원인을 분석한 결과 가정불화가 1위, 우울이 2위로 나타났다.(참고:아시아경제 2021.10.01. 12:12:24)

이에 따라 가정과 친구들에게 할 수 없는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필요하며 그 소통의 자리 마련이 매우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서귀포시 거주 청소년 및 성인 자원봉사자 등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고민 경청, 타로 상담의 소통의 장 운영될 예정이다.

너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가족 봉사활동을 통하여 누군가에게는 필요한 존재가 되고 유용하며 의미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자긍심과 가족이 함께하는 공동의 여가문화를 조성할 수 있고, 뜻깊은 여가활동을 통해 긍정적이고 건강한 가족문화, 가정의 건강성 증진을 꾀하고자 진행되는 제18기 가족자원봉사단 육성 프로그램이다.

대상가족은 초등학교 이상의 자녀를 둔 2인 이상 가족(조부모 포함 3대 가족 세대)을 모집한 가운데 매월 둘째 주 토요일 가족자원봉사단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단체·기관간 네트워크 구축

행복찾는 자원봉사 교육

자원봉사의 참여와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찾아가는 기본교육을 실시 운영함으로써 관내 자원봉사 문화 정착을 유도하고자 관내 초·중·고등학교 및 수요처, 기관 및 단체를 대상으로 자원봉사의 이해, 자원봉사자 기본태도 및 소양교육, 현장의 인권 보호, 1365자원봉사 포털 안내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더불어 사는 자원봉사 공동체 활성화

자원봉사단체와 수요처(단체) 간의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서귀포시 자원봉사 문화를 확산하고 자원봉사자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하고자 센터에 등록된 800여 단체 및 수요처 115개소를 대상으로 자원봉사활동 촉진을 위한 공동체를 모색해 나간다.

또한 1365 포털시스템에 수록된 회원 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개인정보 보호 의식 교육도 진행할 계획이다.

통계로 보는 자원봉사

《편집자》

전문자원봉사단 양성 및 운영

전문자원봉사단체 결성 및 운영을 통해 정기적 전문봉사활동 서비스를 제공하여 수요자들에게 양질의 높은 서비스 제공하고자 내년에는 20명 내외의 손끝으로 전하는 사랑, 손바느질 전문봉사단을 신규 양성한다.

또한, 실버 건강체조, 신바람 나는 락락락, 토탈뷰티, 미를 연출하는 꾸밈아트, 한아름원에 전문자원봉사단 등 센터에서 기 발굴한 전문봉사단을 활용하여 어르신 생활시설(이용시설) 및 장애인 생활시설을 방문하여 수혜자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여기에는 한국농어촌공사 국비 공모사업(10,000천원)과 지방보조금(4,000천원)을 투입하여 운영할 목표를 가지고 있다.

센터 운영의 내실화 및 자원봉사 질 향상

사무국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평가·환류 계획

자원봉사자를 직접 관리하는 사무국 내부관계자의 사업추진 의지에 따라 자원봉사문화의 질적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사무국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평가·환류 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사업추진 애로사항, 개선사항 등 직원토론을 강화하고, 센터 우수사업 의견 교환, 발전방안 협의 등 센터 합동 워크숍 실시, 선진지 견학 기획, 포상 등 우수직원 인센티브 추진 방안, 자원봉사활동 만족도(육구도) 합동(도+행정시센터) 설문조사 실시를 비롯해 평가보고회도 개최(운영위원회 보고)하고자 한다.

자원봉사자 인센티브 제공

일선에서 묵묵히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 봉사하는 자원봉사자들에게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봉사자로서의 긍지와 사명 의식 고취로 자원봉사활동 활력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서귀포시자원봉사센터는 이를 위해 매월 우수 봉사자에게 서귀포시장 명의의 인증패를 수여하고 있으며, 연말에는 금은동장과 함께 봉사자 자택에 ‘아름다운 家’ 현판을 부착해 드리고 있다.

또한, 자원봉사자 만남의 날, 전국자원봉사자대회 등 참가 기회를 최우선으로 제공하여 자긍심을 심어주는데, 내년도에도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사랑나눔 제19호 발간

서귀포시 지역의 어려운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자원봉사들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정기적인 발행지(소식지)로서, 음지에서 봉사를 펼치고 있는 다양한 봉사자들을 발굴하여 소개하는 한편, 특히 지역사회에서 사회공헌사업을 활발히 펼치고 있는 기업체와 사회단체를 소개하는 등 정기간행물을 통한 자원봉사자의 자긍심을 드높여 나가는데 활용 목적이 있다.

내년도에도 다양한 봉사활동을 발굴하여 이야기가 흐르는 감동 소식지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다.

전국적 분석

1365 지원봉사포털시스템에 등록된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자원봉사자 인원은 1,470만 명으로 인구 대비 등록률은 28.5%로서 전년(28.4%) 대비 소폭 증가했다. 이중 활동 인원은 18만 6천여 명으로 활동률은 12.6%로 톱 떨어지고 있다. 그나마 코로나19 거리두기가 완화된 금년의 경우 전년(11.1%) 대비 다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제주지역의 경우 등록 인원은 19만 6천여 명과 활동 인원은 2만 2천여 명으로 29%의 등록률과 11%의 활동률을 보이고 있다. 전년도에는 28%의 등록률과 9%의 활동률을 보였으나 제주지역 역시 일상 회복으로 전국 수치를 만회하고 있어 여간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시도별 등록 및 활동 인원

(인구 기준일자 : 2021. 12. 31.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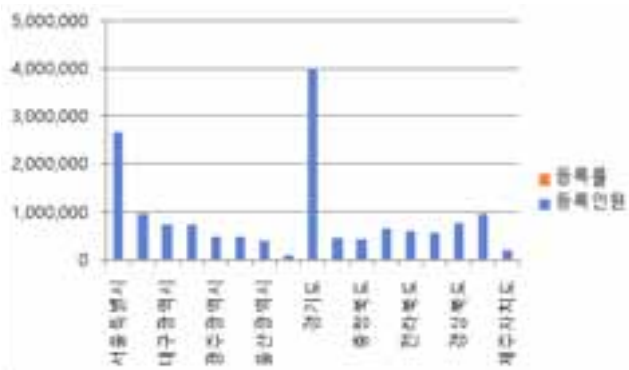
(등록활동 기준일자 : 2021. 10. 31. 명)

시도별	인구(21.12현재)	등록인원	활동인원	인구대비율(%)	등록율(%)	활동율(%)
계	51,638,809	14,700,896	1,861,939	—	28.5	12.6
서울특별시	9,509,458	2,637,071	245,254	18	28	9
부산광역시	3,350,380	960,242	96,717	6	29	10
대구광역시	2,385,412	730,446	84,882	5	31	12
인천광역시	2,948,375	738,038	84,869	6	25	11
광주광역시	1,441,611	491,687	41,917	3	34	9
대전광역시	1,452,251	478,490	53,270	3	33	11
울산광역시	1,121,592	383,537	57,715	2	34	15
세종특별자치시	371,895	82,357	14,000	1	22	17
경기도	13,565,450	3,980,593	350,169	26	29	9
강원도	1,538,492	443,628	51,472	3	29	12
충청북도	1,597,427	414,936	56,379	3	26	14
충청남도	2,119,257	640,689	82,486	4	30	13
전라북도	1,786,855	602,586	80,253	3	34	13
전라남도	1,832,803	577,039	73,656	4	31	13
경상북도	2,626,609	760,183	103,074	5	29	14
경상남도	3,314,183	966,734	102,500	6	29	11
제주특별자치도	676,759	196,424	22,304	1	29	11

※ 용어설명

- 등록인원 : 조회년도까지 자원봉사자로 등록된 인원수
- 활동인원 : 조회년도에 1회 이상 자원봉사에 참여한 인원수
- 인구대비율 : 전체인구 중 해당 연령대가 차지하는 비율

전국 시도별 자원봉사자 등록현황



제주지역 활동 분석

2022년 10월 31일 현재, 제주지역에 등록된 봉사자는 196,424명으로 이 중에서 연간 1회 이상 봉사활동에 참여했던 실인원은 22,304명(남 8,935명, 여 13,369명)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봉사 분야별로는 환경보호 분야 → 생활편의 분야 → 안전방법 분야 → 문화행사 분야 → 주거환경개선 분야 순으로 나타났다.

생활편의		주거환경		상담		교육		보건의료	
남	11,505	남	4,799	남	160	남	2,117	남	656
여	23,001	여	4,136	여	270	여	3,668	여	3,575
농어촌		문화행사		환경보호		행정보조		안전방법	
남	53	남	4,229	남	14,615	남	753	남	11,869
여	188	여	9,677	여	23,477	여	3,872	여	4,501
인권공익		재해재난,응		국제협력		멘토링		기타	
남	35	남	1,824	남	162	남	139	남	9,205
여	41	여	4,247	여	75	여	85	여	17,121

또한 연령별 등록률은 30대에서부터 70대에 이르기까지 20%대의 등록률을 보이고 있는 반면, 10대와 20대에서는 50%대의 등록률을 보이고 있다. 다만, 등록률 대비 활동률은 크게 떨어지고 있다.

10대미만		10대		20대		30대	
인구	57,987	인구	70,369	인구	80,923	인구	81,026
등록인원	563	등록인원	39,339	등록인원	42,955	등록인원	15,696
활동인원	170	활동인원	6,54	활동인원	3,089	활동인원	942
인구대비율	9%	인구대비율	10%	인구대비율	12%	인구대비율	12%
등록율	1%	등록율	56%	등록율	53%	등록율	19%
활동율	30%	활동율	16%	활동율	7%	활동율	6%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인구	111,251	인구	114,905	인구	84,877	인구	75,421
등록인원	23,937	등록인원	30,578	등록인원	20,989	등록인원	16,996
활동인원	2,369	활동인원	4,303	활동인원	3,325	활동인원	2,119
인구대비율	16%	인구대비율	17%	인구대비율	13%	인구대비율	11%
등록율	22%	등록율	27%	등록율	25%	등록율	23%
활동율	10%	활동율	14%	활동율	16%	활동율	12%

서귀포시 지역 활동 분석

서귀포시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수는 2022년 10월 말 현재 48,826명이며, 이 중에서 연간 1회 이상 봉사실적이 있는 활동인원은 6,743명(13.8%)으로 전국 대비 12.6%, 제주자치도 대비 11%보다 약간 웃도는 실정이다.

성별로는 남성이 23,302명(47.7%), 여성이 25,524명(52.3%)으로 비슷한 성비를 나타내고 있다.

연령별로는 50대(9,342명) → 14세이상(7,315명) → 40대(6,487명) → 60대(5,998명)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직업별로는 학생이 7,324명(중학생 3,910명) → (고등학생 2,048명) → (초등학생 781명) → (대학생 585명)이며, 이어서 공무원(1,766명) → 주부(771명)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누적(연인원) 봉사활동 중 유형별로는 생활편의 분야(11,607명) → 주거환경개선 분야(7,397명) → 환경보호 분야(6,589명) → 문화행사 분야(2,993명)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 서귀포시 등록 봉사자 수 (2022.10.31. 현재)

등록인원(활동별)			등록인원(성별)	남	여
계	활동	비활동	계		
48,826	6,743	42,083	48,826	23,302	25,524

○연령별 등록인원

계	14세미만	14세이상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이상
48,826	977	7,315	11,197	3,271	6,487	9,342	5,998	4,239

○직업별 등록인원

계	공무원	사무직	전문직	서비스직	자영업	농수산업	군인
48,826	1,766	502	460	410	559	436	124

주부	무직	기타	학 생				
			소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원)생
771	175	36,299	7,324	781	3,910	2,048	585

○유형별(연인원)

			생활편의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40,093	15,615	24,478	11,607	3,891	7,716	7,397	4,135	3,262
상담			교육			보건의료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183	21	162	2,963	1,275	1,688	68	10	58
농어촌			문화행사			환경보호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134	20	114	2,993	844	2,149	6,589	2,239	4,350
행정보조			안전, 방법			인권공익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646	78	568	1,878	1,258	620	40	30	10
재난재해, 응급			멘토링			기타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1,780	383	1,397	111	72	39	3,704	1,359	2,345

통계가 주는 시사점과 그리고 대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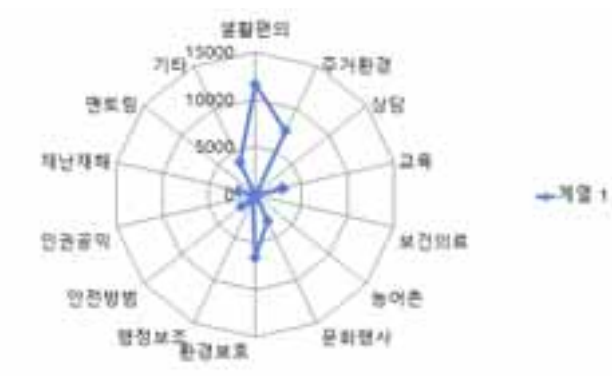
자원봉사활동은 어떠한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신의 의지로 실현되는 봉사활동이기 때문에 복지국가에서의 그 의미는 매우 중요하다 않을 수 없겠다.

그러나 자원봉사자들은 사실상 전문적 인력이 아니기 때문에 수요층의 욕구를 충분히 충족시켜 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며, 이에 대한 전문성 제고, 봉사자들의 소명 의식 등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주어야 할 것이다.

서귀포시의 자원봉사자 역시 그 활동 현황을 토대로 문제점을 적시해볼 때 첫째, 자원봉사자의 소명 의식 부족을 우선 꼽을 수 있겠다.

통계표에서도 알 수 있듯 1365시스템에 등록돼 있으면서도 자원봉사에 실제 참여하는 인원은 여전히 10%대에 머물고 있음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물론 코로나와 사회적 환경에 따라 제약적인 요소들도 있었겠지만 남을 위해 봉사한다는 그 자체가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닐 것이다.

둘째, 공공기관 등 참여도 부족을 손꼽을 수 있다. 공공기관, 기업체를 비롯해 마을, 단체 등 등록된 118개소의 수요처에서 약 60%에 달하는 인원이 봉사활동에 참여해 주고는 있으나 참여기관이 극히 제한적이고 아예 참여실적이 전무한 곳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 이는 연령별 통계표에서도 알 수 있듯 한참 사회활동을 왕성히 영위하는 30대와 40대에서 전



체 봉사자의 2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직장생활에서 쉴때여 봉사활동에 참여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데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인바, 공공기관장이나 지역사회를 이끌어가는 리더 그룹에서 공익사업과 연계한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내지는 절대적 관심과 지원이 선행되어야 하리라 본다.

셋째, 언제까지 質보다는 量이 우선이어야 하는지, 의식개선이 시급하다고 본다.

예를 들어 어려운 청소년에 대한 공부방 만들기 사업에 있어 사업신청서와 완료 보고서에 수혜 인원만을 중요시한 나머지 숫자만 넓히다 보니 개별적으로 투입되는 사업비는 그야말로 쪼개져 ‘보여주기식’에 그치는 사례가 있다. 단순히 책상 하나 놓는 사업이 아니라 공부할 수 있는 제대로 된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어려운 가구에 대한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가구당 2~3백만 원으로 10여 가구를 선정하다 보니 수혜층은 넓어서 좋으나 질이 떨어져 원성만 듣게 됨에 따라 차라리 아니 지원해 준만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즉, 가구당 지원해 주는 2~3백만 원은 도배와 장판 정도에 그쳐 수요층에서 간절히 요구하는 빗물 누수, 지붕개량, 방수페인트 등을 같이 보수해 주지 않으면 도배, 장판 교체사업은 무용지물이 된다는 뜻이다. 따라서 양적 숫자에 연연하기보다는 수혜층으로부터 맞춤형 질적 사업으로의 변환을 모색해야 하겠다.

넷째, 코로나 엔데믹 시대를 맞이한 대면, 비대면을 적절히 활용한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다고 본다.

통계표에서도 알 수 있듯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에는 26.2%였다가 코로나19가 확산된 2020년도에는 14%로 떨어졌으며, 코로나 엔데믹 상황에서도 11%대로 떨어져 비대면 봉사 활동프로그램 개발이 그만큼 필요해졌다.

특히 봉사자들이 가정에서건 생활 속에서건 손쉽게 영향을 끼치고 보람을 얻을 수 있는 프로그램부터 개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봉사 전문기관은 많은데 각각이 흩어진데다 저마다의 실적과 성과 쌓기에만 급급한 나머지 협업체계가 없다. 물론 각기 기관단체마다 특성이 있고 설립목적이 다르겠지만, ‘사회공헌사업’ 내지는 ‘지역사회개발’이라는 큰 틀에서의 목적을 위해 봉사단체 간 협업을 이뤄 공동의 목표를 추구해 나가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겠다.

예컨대 한 차례도 시행한 적이 없는 마라도 섬 주민을 위한 이동식 밥차활동과 읍면지역에 집중 펼쳤던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좋은 사례라 아니 할 수 없겠다.

코로나 엔데믹 시대로 접어들었다. 어떠한 일이 닥친다 해도 성숙한 시민의식과 다양한 시민참여를 기반으로 자원봉사활동의 질적 성장과 발전이 필요한 시점이다. 

올해를 빛낸 봉사단체 소개

서귀포시자원봉사센터에서는 816개 단체 5만여 명의 봉사자가 등록돼 다양한 분야에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에 우수봉사 단체를 추천받아 여기에 소개한다.

《편집자》



서귀포의료원 「누리보듬봉사단」을 찾아서

서귀포의료원(원장 박현수)과 서귀포시자원봉사센터(센터장 김두만)는 지난해 4월 7일 의료원 대회의실에서 병원 관계자와 자원봉사 단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누리보듬 자원봉사단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원내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누리보듬 봉사단은 봉사를 통해 서귀포의료원을 찾는 환자와 내원객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재능 기부를 통한 나눔 활동의 확산을 위한 것으로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매일 3명씩 활동을 펼치고 있다.

박현수 서귀포의료원장은 발대식 인사를 통해 “사랑과 봉사정신을 실천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행복을 주는 자원봉사단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누리보듬 봉사단은 별도의 단장이나 회장을 선출하지 않고 서귀포시 자원봉사센터의 후원으로 봉사 단원이 모집돼 활동하고 있다.



「서귀포소방서 대신여성의용소방대」를 찾아서

위 단체는 2002년 5월에 설립된 단체로서 김명자 회장을 중심으로 30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주요활동으로는 취약계층돕기사업, 어린이 소방 안전체험 및 사랑의 소화기 기증하기 사업, 수변 안전지킴이 순찰, 물놀이 안전 체험, 주택안전점검 및 화재 예방 캠페인, 소방차 길 터주기 홍보, 화재 없는 마을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보급 및 단독 경보형 감지기 시설), 공공기관 및 지역주민 안전교육 등이 있다.

특히 이들 단체는 각종 크고 작은 행사 때마다 ‘안전’을 키워드로 안전체험장 운영과 교육과 중증 응급환자 처치 역량 강화교육에도 앞장서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의 초석이 되는 봉사단체로 거듭나기 위하여 지역의 환경정비를 비롯해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 마늘, 고추장, 전통 된장을 만들어 물품 후원사업에도 그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이태원 압사 참사를 계기로 ‘안전’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작금, 이들 단체에 거는 기대와 사명감이 남다를 것으로 관측된다.

「서귀포경찰서 모범운전자회 서귀포지회」를 찾아서

이 단체는 1982년 8월 20일, 서귀포경찰서 모범운전자회로 분리된 이후 2000년 5월 20일, 제주도 비영리 민간 단체로 등록되었고 초대 장창기 회장으로부터 현재 22대 강승희 회장이 단체를 이끌고 있다.

강승희 회장은 “택시 운전을 하면서 생업에 많은 어려움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체계적인 봉사활동을 하고자 회원들의 열의가 대단하다.”라면서 “앞으로도 회원들의 봉사활동을 위한 창의적인 기획력을 선보이며 변함없는 열정을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이들 단체는 모두가 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지역에서 개최되는 체육행사 및 지역 문화 행사에 참여하여 교통안전 봉사를 임하고 있으며, 특히 학생들의 안전한 등교를 위해 학교 앞 교통 봉사를 지속해 오고 있다.

또한, 서귀포시 3대 시책 중의 하나인 ‘서귀포시의 한 줄 주차 정책’을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회원들이 합심하여 나가고 있는 등 서귀포시 교통문화 향상과 자원봉사 문화 향상에 앞장서고 있다.



「서귀사랑 봉사회」를 찾아서

서귀사랑봉사회는 (구)서귀포시 관할에 살고 있는 불우한 이웃을 돕는데 목적을 두고 2002년 1월에 5명이 발기대회를 가진 후 2000년 2월 26일에 첫 정기총회를 시작으로 창립되었다. 아울러 무의탁 노인, 소년 소녀 가장, 저소득층, 독거노인, 장애인 등 우리 주변에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해 많은 불편을 겪고 계신 분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드림과 동시에 회원간 친목 도모를 겸하고 있다.

연간 3가구에서 5가구를 목표로 2002년 2월 이후부터 2022년 현재에 이르기까지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해 오고 있다. 현재까지 60여 가구 넘게 사업을 진행했으며, 앞으로도 멈추지 않고 더 많은 곳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회원 모두가 뛰고 있다.

특히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필수적인 자금은 회원들이 십시일반 뜻을 모아 충당하고 있다.

창립 당시 5명으로 시작한 서귀사랑 봉사회는 현재 14명의 다양한 직업군을 가진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고종후 회장 미니인터뷰



Q. 봉사단체를 이끌어 오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업이나 현장은?

“돌이켜보면 기억에 남는 일들이 참 많지만, 혁신도시가 개발되기 전 과수원 안 조그마한 창고주택이 떠오릅니다. 그 주택은 비가 새고, 오래된 목재 문들로 인해 위 풍이 아주 심했으며 방안은 도배지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곰팡이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냉난방 시설은 전혀 없었으며, 겨울에도 당연히 찬 물로 생활 할수 밖에 없는 아주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회원들과 여러 차례에 걸쳐 논의 후 주택 전반에 걸친 공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방수, 도배, 장판, 보일러, 새시 교체 등등의 공사는 3차에 걸쳐 7일 정도 계속되었습니다. 특히 보일러를 놓기 위해서는 몰탈이 필요한데 과수원 깊숙한 곳에 주택이 위치하다 보니 장비가 들어갈 수 없어서 일일이 사람 손으로 시멘트와 모래를 나르고 또한 삽으로 시멘트와 모래를 이기며 쉽지 않은 공사 과정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러한 힘든 과정을 이겨내고 공사를 다 마친 후 보일러를 시운전할 때, 따뜻해져 오는 방바닥과 따뜻한 물이 나오는 순간 너무나 좋아하시던 할머니 모습에 우리 회원들 얼굴에도 미소가 한가득이었고, 그동안의 힘듦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최근에 공사한 주택 중에서 기억에 남는 곳은 화장실이 없어서 공사 기간 중에도 참으로 난감(?)했던 과수원 안 농가 주택입니다. 좌식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해드렸고 밤에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외부 등도 달아드렸습니다.”

“이 외에도 서귀사랑 봉사회는 에어컨 설치, 가스레인지, 싱크대 등 꼭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집수리 외에도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Q. 앞으로의 포부나 남기고 싶은 말씀은?

“봉사활동을 하면서 매년 느끼는 것은 힘듦이 아닌 따스함입니다. 물론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이 조금 힘이 들 때도 있지만, 작업을 마치고 난 뒤에 너무나 좋아하시는 어르신들과 아이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으며, 어떤 언어로도 형언할 수 없는 몽글함이 느껴집니다.”

“이 몽글함과 따스함이 우리 서사회 회원들을 20년 넘게 달려오게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서귀사랑 봉사회 회원 모두는 앞으로도 저희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밝은 웃음을 드리기 위해 멈추지 않고 열심히 달려 나가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삼성나-너 우리봉사단」을 찾아서

오곡과 과실이 익어가는 절기에 맞는 명절에는 음식이 그리워진다. 햅쌀과 햇과일로 차레를 지낸 후 나눠 먹는 음식은 여름 내내 땀흘려 일했던 고단함마저 잊게 한다. 그래서 “한가위만큼만 해라”고 했다.

먹을 게 풍부한 시대라지만 한가위는 그냥 넘길 수 없다. 한가위가 있어 가족이 모이고, 공동체가 결속을 유지하지만, 형편이 넉넉지 않은 어려운 이웃에게는 더없이 쓸쓸할 수가 있다.

삼성 나-너 우리봉사단(단장 서연문)은 이러한 어려운 이웃을 보듬어 다함께 즐거운 명절을 보내자는 의미에서 명절 상차림 나눔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3년째 이어오면서 마음까지 풍성하게 만드는 이색적 봉사활동으로 정평이 나 있다.

특히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 상차림마저 버거운 이웃들에겐 희망과 용기를 더해주고 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삼성 나-너 우리봉사단은 2018년 연말, 삼성여고 동문봉사단으로 출발하여 2020년 1월 삼성 나너 우리봉사단으로 단체를 설립하였다.

그 해 6월, 코로나19가 한참 기승을 부릴 즈음 삼성 나-너 우리봉사단은 마스크 3000매를 서귀포시 공영버스에 기증하여 미처 마스크를 준비하지 못해 대중교통 이용에 제한을 받는 승객에게 무료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모두의 안전과 예방에 힘을 보탰다.

이 시기에 타 도에서는 마스크 미착용으로 운전원과 승객간 과도한 언쟁이 발생하는 등 또 다른 사회적 문제로 야기되고 있다는 보도를 접한 삼성 나-너 우리봉사단이 기증한 것이다.

이외에도 쉼섬 앞 환경정화활동을 비롯하여 각종 행사장, 축제장, 문화행사에 안내 도우미 등 자원봉사 활동에 항상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단체이다.



「제주특별자치도폴리스봉사단 서귀포시지부」를 찾아서

위 단체는 2008년 6월 태권폴리스봉사단으로 창립하여 학교폭력 및 아동 폭력 예방을 위한 각 캠페인 활동, 가정 방문 상담 활동을 꾸준히 하여오다 2개월 뒤 2008년 8월 8일에 동부태권폴리스봉사단으로 단체명을 정정하여 성산, 표선, 남원 지역에 집중적으로 활동을 해온 단체이다. 이후 2010년 1월 제주특별자치도폴리스봉사단(단장 고방실)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동부지역만이 아닌 제주도 전 지역을 대상으로 활동을 하게 되었다.

이후 학교폭력 및 아동 폭력 예방 봉사활동을 대부분 하여왔으나 봉사활동 영역을 대폭 넓혀 주거환경개선사업, 환경정화활동, 청소년선도 활동, 안전모니터 활동 등을 전개해 왔다. 이들 단체의 주요 활동을 살펴보면

- ① 13년 4개월 동안 성산지역 거리 교통질서 계도 활동
- ② 2008년 6월 창단 후 현재까지 주1회 야간 자율 방법 활동
- ③ 창단 이후 현재까지 월 1회~2회 주거환경 봉사(집수리 봉사)
- ④ 창단 이후 현재까지 주1회 심야 배회 청소년 귀가 조치 및 유해업소 방문 등 청소년 지도 활동
- ⑤ 창단 이후 현재까지 월 1회 소외계층 가정 방문하여 주거 탐사 및 상담 활동 전개
- ⑥ 창단 이후 현재까지 월 1회 제주 청정 환경을 위한 환경정화 활동
- ⑦ 코로나19 이후 성산지역 주 1회 방역 활동 전개
- ⑧ 창단 이후 현재까지 주 1회 놀이터, 공원, 거리 등 마을 곳곳의 위험 시설물 모니터 활동 전개
- ⑨ 전국체전, 철인3종경기, 성산 일출제 등의 지역 축제 및 문화체육행사 운영 지원 등이 있다.

이와 같은 활동으로 2022년도 정부포상에 국민 추천되기도 했다.



화보로 보는 자원봉사 현장



안덕면 주민주도형 자원봉사 공동체

‘안덕면 주민주도형 자원봉사 공동체’는 9월 7일 안덕 생활체육관 일원에서 봉사자 40여 명의 참여로 ‘안덕의 추석 풍경’을 진행했다. 주민주도로 기획한 이 프로그램은 안덕면 지역 내 독거인의 소외감을 줄이고자 지역 농, 수산물을 활용한 안덕 전통 추석 음식을 만들어 60명의 대상자에게 ‘차롱 도시락’을 전달했다.



어부바와 함께하는 청소년 행복공간 조성 사업

신협 제주도실무책임자협의회 두손모아봉사단(단장 허두은), 대정신협(이사장 오남필) 임직원 등 봉사자 50여 명은 10월 4일부터 15일까지 대정읍, 표선면 등 가정 형편이 어려운 청소년 가구 9곳을 찾아 청소년 행복공간을 조성했다. 사업은 도배, 학습용 PC, 책상, 침대 등 가정 내 공부방 조성을 위한 물품 지원을 통해 진행했다.



행복한 청소년 삶 만들기 위한 공동 프로젝트 「아는것만 물어보살」

본 센터 개인 상담봉사자 5명은 4월부터 매월 1회 청소년 내담자와의 상담을 통해 청소년들이 타인에게 이해받고 있다는 감정을 느끼게 해줌으로써 세대 갈 갈등 해소 및 청소년 문제 예방에 앞장서고 있다.



성산읍 주민주도형 자원봉사 공동체

‘성산읍 주민주도형 자원봉사 공동체’는 11월 5일 성산국민체육센터 일원에서 봉사자 50여 명의 참여로 ‘세계의 산후조리 보양식, 훈디 알아보멍! 먹으멍!’을 진행했다. 주민주도로 기획한 이 프로그램은 이주민과 원주민 간 생활·문화 차이를 극복하고자 세계 산후조리 음식을 만들어 200여 명의 주민에게 제공했다. 더불어 세계 산후조리 음식 사진 전시회를 통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감성-소통-이음 프로젝트 「봉사하쇼 : 좋은수다」

본 센터는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서귀포삼성여자고등학교와 협력체계 구축으로 매월 1회 자원봉사자 스토리텔러 섭외를 통해 자원봉사 토크쇼 영상을 촬영, 편집, 공개함으로써 서귀포시 자원봉사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있다.



누리보듬봉사단 서귀포의료원 안내 서비스

누리보듬 봉사단은 봉사를 통해 서귀포의료원을 찾는 환자와 내원객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재능기부를 통한 나눔 활동의 확산을 위한 것으로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매일 3명씩 활동을 펼치고 있다.



가족자원봉사단

제17기 가족자원봉사단은 30가족 100명의 봉사단으로 결성 되었으며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한 플로깅 및 수국묘(600본)을 하례 2리 마을에 식재 등 활동을 전개하였다.



자원순환을 위한 자원봉사 프로젝트 「함께 투명할래?」

바르게살기운동 서귀포시협의회, 서귀북초등학교, 성산읍새마을부녀회 등 18개 기관(단체)의 참여로 매월 1회 투명 페트병, 종이팩, 건전지, 헌 옷의 고품질 자원순환을 위한 자원순환 캠페인을 추진하여 10월 말 기준 9천여 명의 참여로 투명페트병(17t), 종이팩(346kg), 건전지(555kg), 헌 옷(4,508kg)을 수집하여 자원순환 사회를 선도하는 서귀포시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설맞이 떡국나눔

1월 21일 민족 대명절을 맞이하여 공무원연금공단 주최로 떡국 나눔 봉사가 실시되었다. 서귀사랑봉사회 등 10개 단체 83명의 자원봉사자가 설맞이 떡국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일일이 배달하는 수고로움을 아끼지 않았다.



문화예술공연에 봉사 협업

서귀포시(예술의 전당, 김정문화회관)와 서귀포시자원봉사센터는 서귀포 문화예술인의 향유와 저변 확대를 위해 개최되는 각종 기획공연과 전시회에 자원봉사 활동 협업을 이끌어 오고 있다. 지난 2월 26일, 서귀포예술의 전당에서 열린 '뉴욕필 하모닉 현악 4중주' 기획공연을 시작으로 최근(11월 26일) 김정문화회관에서의 '2022 나는 불후의 편곡자다' 기획공연까지 총 33회를 진행했다. 여기에는 (연) 78개 단체 661명의 봉사자가 안내에 나섰다.



하영올레걷기

서귀포시는 건강도시를 선포한 가운데 하영올레 걷기 행사를 계절별로 실시하고 있다. 3월 25일부터 27일까지 개최된 걷기 축제에는 소비자증앙회 서귀포지회 등 13개 단체 106명의 자원봉사자가 투입되었다. 이어 5월 29일에 열린 1주년 기념 걷기대회와 7월 31일 첫 돌잔치에는 삼성나너우리봉사단이 봉사활동에 나서 주었다. 10월 23일 가을 걷기대회에는 칠팔동우회 등 6개 단체 35명의 봉사자가 코스 안내 봉사에 나서 주었다.



고령 마을농가 일손돕기 봉사

월 11일부터 21일까지 대정지역을 중심으로 고령의 마을농가가 일손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따라 제일교회봉사단, 삼성 나너우리봉사단 등 10개 단체 125명의 봉사자가 투입되어 일손돕기 봉사활동을 집중 전개하였다.



서귀포보건소 접종센터 교통안내봉사

코로나19가 극성을 부렸던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23일까지 서귀포보건소 접종센터에서는 PCR검사가 주를 이뤘는데, 주변 교통이 극심하였으나 해병대전우회 서귀포지회에서 116명의 봉사자가 교통안내 봉사에 나서 불편함을 해소해 주었다.



제3회 서귀포 은갈치축제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개최된 제3회 서귀포 은갈치축제에는 삼성 나너우리봉사단 등 9개 단체 140명의 봉사자가 투입되어 교통질서 등 봉사활동에 임했다.



2022 주민자치박람회 & 평생학습박람회

지난 10월 21일부터 22일까지 월드컵경기장 광장에서 열렸던 2022 주민자치박람회 & 평생학습박람회에 서귀포불교자비봉사회 등 11개 단체 49명의 자원봉사자가 투입되어 주차장 질서,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에 나섰다, 전달했다.



제56회 도민체전

지난 10월 28일부터 30일까지 강창학경기장 일원에서 제56회 도민체육대회가 열렸다. '도체비'란 오명을 씻은 가운데 모처럼 화창한 날씨 속에서 (사)해변전우회 서귀포지회를 비롯한 중문여성의소대, 대신여성의소대 등 17개 단체 162명의 자원봉사자가 주차안내, 미아보호소 운영 등 자원봉사에 나서 성공적 대회를 뒷받침했다.



청소년자원봉사양성과정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플로깅 활동을 전개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스스로 기획해보고 해결과제를 토론하며 앞으로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목표를 세우고 프로젝트를 구성해보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제24회 서귀포유채꽃 국제걷기대회

3월 26일부터 27일까지 서귀포시관광협의회 주최로 열린 제24회 서귀포유채꽃 국제걷기대회에는 사랑하늬봉사회 등 13개 단체 106명의 봉사자가 투입되어 코스안내 등 대회를 뒷받침했다.



전국 장애인기능경기대회

9월 20일부터 21일까지 중문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전국 장애인기능경기대회에는 중문적십자봉사회, 중문새마을부녀회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하였다..



청소년진로축제

9월 27일부터 28일까지 예술의 전당 일원에서 열린 2022 청소년 진로축제에는 서귀포상상로터리클럽 등 12개 단체 180명의 자원봉사자가 투입된 가운데 성공적 축제를 뒷받침했다.



2022 국제유니버설디자인엑스포

11월 13일부터 15일까지 중문국제컨벤션센터에서 국제유니버설디자인엑스포가 개최되었다. 이 기간 동안 여성자활센터 등 6개 단체 30명의 자원봉사자가 안내에 나섰다.



전문자원봉사단양성

센터에서 양성한 락락락봉사단, 한아름전문자원봉사단 등이 4월부터 10월까지 각 읍면 마을 경로당을 찾아 행복밥차와 함께 어르신 뇌 증진 건강 프로그램 등의 봉사활동을 전개하였다.



2022 제주트레이닝대회

6월 5일, 가시리마을회에서 주최한 2022 제주트레이닝대회의 성공을 위해 삼성-나,너,우리봉사단에서 참가자 선수 등록, 물품 보급소에 대한 자원봉사 활동이 이뤄졌다.



2022 제주국제철인3종경기대회

2022 제주국제철인3종경기대회가 11월 6일 표선, 성산 일원에서 열렸는데, 나비봉사단을 비롯한 5개 단체 57명의 자원봉사가 투입된 가운데 바꿈터 및 보급소를 운영했다.



통합자원봉사 지원단 재난대비 안전교육



선별진료소 주차지도



이삿짐 나르기



산악마라톤



한국남부발전 주민주도 후원



행복밥차



한국남부발전 무더위 취약계층 후원



봉사라는 길 위에 우뚝 서다

홍기확 · 서귀포시 자치지원팀장



몇 해 전 서귀포시 공직자 30명여과 라오스로 봉사활동을 다녀왔다. 주된 활동은 수도 비엔티엔 외곽에 있는 던녹쿰 초등학교에서 이루어졌다.

학생 수는 50여명. 운동장에는 먼지만 날릴 뿐 어떠한 시설도 없었다. 우리는 학교를 페인트칠 하고, 놀이터를 만들고, 놀이기구를 배치하고, 잔디를 심었다. 그리고 아이들과 놀고 파전 굽기 체험을 하고, 기부물품도 전달했다.

가장 가까운 놀이터가 10km 떨어져있다는 선 교사의 말은 아이들이 놀이터에 가본 적이 없다는 말이었다. 놀이터가 완성되자 아이들 모두가 광속으로 질주하기 시작했다.

우리의 눈에는 아이들의 흥분어린 달리기나 슬로우 비디오처럼 보였다. 그만큼의 더딘 몽클한 감동이 오랫동안 이어졌다. 30명 어느 누구도 시선을 아이들에게서 떼지 못하고 우두커니 몇 분간

지켜봤다. 그 느낌은 며칠이 지난 지금도 심장의 좌심실 어디쯤인가에 각인되어 돌아다닌다.

봉이란 것이 남을 위하는 이타적(利他的)인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수정한다. 봉사는 지극히 이기적(利己的)인 행위이다. 놀이터 선물을 받은 아이들보다,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얻었다.

던녹쿰 초등학교에 처음 도착했을 때 아이들의 첫 표정이 대부분 어두웠다. 교장선생님은 60% 가량이 부모가 이혼한 결손가정이라고 설명했다. 놀이터가 만들어지자 천방지축으로 뛰노는 아이들. 지금은 비록 아픔을 지니고 있지만, 그들의 꿈이 천방지축으로 뻗어나갔으면 한다.

‘고생길’ 인 줄 알고 떠난 30여명의 서귀포시 공직자가, 행복한 감정이 드나드는 ‘나들길’을 신나게 걷고 왔다. 

자원봉사의 숭고한 의미

문경옥 · 성산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자원봉사는 스스로 원하여 받들고 섬긴다는 숭고한 정신이 깃들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유의지에 의한 활동으로 자원봉사자들의 숭고한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의 의미는 시대에 따라 달라져 왔습니다. 과거에는 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을 섬기고 돕는 행위로 자원봉사를 이해해 왔지만, 오늘날에는 돌봄과 연대의 정신을 통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입니다.

이렇게 확대된 의미로는 자원봉사는 지역 사회 문제나 국가의 공익사업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공동체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활동이 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하면서 삶의 의미를 찾고 자아를 실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업이나 활동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건비는 장애요인으로 등장하고, 적재적소에 인력을 확보하는 일 또한 난제가 아닐 수 없지만, 자원봉사의 꽃인 기능인력들의 재능기부는 이러한 모든 문제를 일거에 해소하고 능률적인 성과를 거양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는 봉사현장에 각계각층에서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들은 스스로의 역할분담과 공조를 통해 조직적인 활동이 이루어지는 현장은 우리의 밝은 미래인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자원봉사 활동은 있는 자가 없는 자에게, 배운 자가 못 배운 자에게, 힘이 있는 자가 힘이 없는 자에게 일방통행식으로 시혜를 베푸는 활동이나 개인적 만족을 얻는 활동이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가지를 배우면서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활동이라고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자원봉사의 소중한 의식을 국가사회 발전과 화합으로 승화시키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웃에 대한 관심(關心)을 가지고 둘러보는 일과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理解)하는 노력과 무한의 배려(配慮)와 상호 존중(尊重)하는 사회분위기를 만들어 ‘함께 살아가는 행복의 가치’를 일깨워 나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봉사는 아름답습니다. 서귀포 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봉사하는 순간순간마다 저는 행복합니다. 



자연의 경고에 귀 기울이며... “우분투”의 덕목을 배우자.

채금숙 · 바르게살기운동성산읍위원회



“천혜의 제주” 누구에게나 친근감과 익숙함으로 다가서는 문구가 아닐까 싶다. 아름다운 자연이 주는 신비로움과 더불어 제주의 땅을 즈려 밟으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과연 아름다운 제주에 대한 보답으로 제주를 지켜주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었을까?

자원순환을 위한 봉사프로젝트인 “우리 함께 투명할래?”라는 생태환경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서귀포 관내 초등학교 봉사에 동참하게 되었다. 서귀포시 자원봉사센터와 바르게살기 서귀포시 협의회가 연계하여 서귀포 시내 초등학교등을 대상으로 폐페트병 수거 활동을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이다.

사용한 폐기물을 재생 이용함으로써 폐기물 발생량을 최대한 줄이고 불가피하게 남은 폐기물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원순환을 위한 폐페트병 모으기 봉사활동을 학생들과 함께 진행하고 있다.

“우리 함께 투명할래?”가 진행되는 이른 아침이면 미소를 가득 머금은 환한 얼굴의 학생들을 만나게 된다. 설레이는 마음으로 폐페트병을 들고 활기차게 정문으로 들어서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동안 많이 아파했을 제주의 자연과 지구가 느꼈을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한 일에 아이들도 또한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고 있음에 가슴이 뿌듯해져 옴을 느낀다.

타 지방에 비해 쓰레기 분리수거의 정착이 잘되어 있는 제주이지만, 그동안 분리수거의 주체는 어른들에게 주어진 의무처럼 당연히 되어오진 않았을까? 우리 아이들이 함께 자원순환 봉사 프로젝트를 실천 함으로서 나눔과 지킴에 대한 생각이 더욱 풍성해지리라 본다.

해수면이 상승 되고 있는 바다의 경고에 우리는 귀 기울여야 한다. 기후 위기와 환경오염이 바로 눈앞의 현실로 다가왔다. 지구가 생태계 파괴로 인해 한계치에 도달하여 모두가 당장 온 힘을 기울인다 해도 예전의 상태로 돌아 갈 수 없는 상태이지만, 바꿀 수 없는 환경 파괴에 대한 문제로 좌절하느라 시간을 낭비한다면 앞으로 우리가 느낄 행복지수는 더 낮아지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곁에 있는 아름다운 자연, 이곳에서 살아 숨 쉬고 힐링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욕망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망치지 말고 지금 가진 것이 한때는 간절히 바라던 것이었음을 기억하며 이젠 우리가 지켜가야 할 때이다.

봉사의 길은 멀지 않다.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존재이며 서로가 기대어 살 수 밖에 없는 가장 필요한 덕목인 “우분투”가 시사하는 사람다움을 느끼며 나누는 것. 이 마음이 곧 봉사이다. 혼자 가면 빨리갈 수 있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다는 말처럼 서로의 필요에 귀 기울여 공감하며 나눔을 실천하는 작은 태도에서부터 봉사는 시작된다. 이런 작은 봉사를 실천하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아주 밝아 보인다.

푸른 숲과 맑은 햇살이 만나 아름다움을 발산하는 그곳에서 멋지게 성장해갈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우리함께 투명할래” 봉사프로젝트는 꾸준히 진행 되어야 될 것이며, 아직 함께 동참하지 못한 수많은 학교의 학생들에게 참여할 기회를 제공해주어 자원순환 봉사프로젝트가 학생들의 인성교육의 활성화 방안으로 모색되어지길 바라며 이로 인해 파생된 건전한 인격 형성이 학교 교육의 실질적인 목표로서 추구되어야 한다고 본다. 

지귀도에도 해풍은 스치는데

박영주 · 대정읍새마을부녀회 직전회장



3년 전에 서귀포시새마을부녀회(회장 현금영) 봉사활동 차원에서 17개 읍면동 새마을부녀회 회장님들과 지도자들이 봄철과 여름철에 지귀도를 몇 번 방문한 적이 있었다. 나는 물론 지귀도가 초행이었고 우리 대정읍 새마을부녀회에서도 부회장님 두 분과 (현)대정읍 새마을부녀회장 이영미 회장님을 포함해서 우리들 일행은 위미리 선착장에 도착해 선박을 이용하여 지귀도로 향했다.

시원한 바닷바람에 새하얀 파도를 가르며 드디어 지귀도에 도착했다. 조그마한 섬 지귀도에는 낚시꾼들이 갯바위 낚시에 여념이 없는 듯 보였다. 우리 일행들은 분리수거 마대를 몇 개씩 손에 들고 해양쓰레기를 줍기 시작했다. 물론 재활용품은 종류별로 따로 분리해서 자루에 담는 것은 당연지사. 하지만, 눈 앞에 펼쳐진 광경은 실로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멀리서 바라보이는 지귀도는 너무나도 평화롭고 아름다워 보이는데 막상 섬에 와서 보니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참으로 가관이었다.

주범은 바로 해양쓰레기인 어구들과 스티로폼 그리고 형형색색이 플라스틱들이 서로 엉키고 섞여서 바위틈마다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아찔! 이 건 정말 말도 안 된다. 우리 일행들은 피약별에서 구슬땀을 흘리면서도 바위틈에 끼어있는 스티로폼과 유리 조각 등등 하나라도 더 깨끗하게 주워내려고 모두들 열심히 해양쓰레기를 플라스틱과 고철 그리고 스티로폼을 분리하며 작업을 진행하였다.

시간이 어느 만큼 흘렀을까? 섬이 우리들이 주워버린 해양쓰레기 자루만큼이나 정비례라도 하는 듯이 깨끗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시야에 다가왔다.

무인도라는 섬 지귀도에 초식동물이 살고 있는지 여기저기 둘러보아도 모습은 보이지 않고 새까만 토끼 똥 같아 보이는 배설물들이 군데군데 널려있었다. 아무튼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 토끼일 거라고 상상하면서 건강하게 잘 지내주기를 염원해 본다.

특히나 요즘은 해수면 상승과 지구온난화 그리고 이상기후로 인하여 전 세계적으로 넘쳐나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일회용품과 플라스틱을 줄이고 환경보호를 위한 친환경 제품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는 모양이다. 마스크에 의하면 바닷물에 떠밀려온 고래 사체에서 비닐과 플라스틱 같은 쓰레기들이 뱃속에 어마어마하게 담겨있고 가스가 차 있는 사체로 해안가에서 발견되었다는 기사를 가끔은 접하면서 참으로 당혹스럽다.

우리들은 모두가 조금은 불편하더라도 일회용품은 줄이고...

아니다!

아예 일회용품들은 만들지 않으면 안 될까? 환경오염이 주범이라는데 왜 자꾸 만들어야만 될까? 그것은 분명 우리들의 잘못도 있는 것이다.

일회용품이 편리함에 길들여진 우리들은 그만큼 일회용품을 선호하고 또, 소비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일회용품이 생산되고 있다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도 같은 의미는 아닐까?

아무튼 지금은 누가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미래의 주인인 우리들의 후손을 위해서라도 작금의 현실을 직시하고 재활용품 분리수거와 일회용품 줄이기, 가능하면 친환경 제품을 선호하기 등등 우리 모두가 풀어야만 할 과제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만 같다. 

봉사활동 22년, 내 삶에 심포는 없어

이창순 · 서귀포시여성자원활동센터 자원봉사회



제가 여성자원활동센터 자원봉사회에서 활동한 지도 어느덧 22년, 세월이 빠르게 지나갔네요. 처음 여성자원활동센터에 들어온 계기는 직장을 다니다가 집에서 지내려고 하니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하다 옆집 언니가 봉사활동을 다닌다면 서 함께 하자고 권하였고 나는 처음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여성자원활동센터 자원봉사회는 1999년도 창립된 신생 단체로서 2000년도 내가 가입하고 봉사를 시작하게 된 단체이다. 처음 서귀포여자고등학교 옆에 있는 작은예수회와 성요셉양로원(추후에 성요셉요양원으로 변경됨) 두 곳을 중점적으로 다니기 시작하였다.

작은예수회에는 장애인 부모들이 자신들의 장애 자녀들이 함께 모여 생활할 주택을 마련하여 작은예수회에 기증하였고, 뜻을 함께 해주실 몇몇 수사님들이 장애인들을 돌보고 있는 곳이었다. 우리는 격주로 다니면서 청소 및 반찬을 만들고 가끔 장애인 친구들과 함께 나들이도 다니곤 하였다.

가끔 그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 친구들이 부모님이 보고 싶다고 불편한 몸을 이끌어 작은예수회 집 밖으로 나가는 모습을 볼 때면 세상의 모든 자식은 부모를 그리워한다고 생각하니 눈에 눈물이 나기도 했다. 하여 나는 친구들에게 함께 봉사 활동 하자고 권하기까지 이르게 되었고, 나로 인

해 많은 친구들이 함께 봉사활동을 시작하기도 하였다. 물론 친구들도 처음 시작할 때는 모두 어색해하더니 차츰 익숙하게 변하는 모습을 보고 봉사에 진심으로 대하니 이런 좋은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구나 하는 생각과 나의 마음이 따뜻함을 느끼게 되었다.

또 다른 시설인 성요셉양로원(현재 성요셉요양원)은 어르신 생활시설로서 우리 봉사자들은 그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어르신들하고 그림그리기, 종이접기, 동요 노래 부르기, 목욕 봉사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였다. 어르신들은 우리 단체 봉사자들이 방문해 목욕을 해드리면 “시원하게 밀어 달라” 하시면서 반응을 보이고 좋아하시는 모습에 더욱 딸처럼 정성을 다하고 싶어진다. 그렇게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열심히 씻겨드리고 청소하고 활동 보조를 하고 나면 어느새 옷이 땀으로 흠뻑 젖고는 하였지만, 어르신들이 우리가 가는 날을 기다린다고 수녀님이 말씀해주실 때면 봉사의 힘든 일은 잊은채 마음이 풍요로워짐을 느끼곤 하였다.

언젠가 성요셉양로원 어르신들하고 제주도 일주를 할 기회가 있었다. 내 기억으로는 그때 제주 자연사 박물관을 간 것으로 기억 되어진다. 그곳에서 어르신들이 신나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는 무슨 이야기들을 저렇게 신나게 하고 계실까 궁금해지면서 나는 가까이 다가가 귀를 쫓긋 열고 었

듣게 되었다. 어르신들은 박물관 전시물들을 보면서 옛날 기억들을 이야기하느라 신나서 서로 다투어 이야기를 하고있는 모습을 보니 모두가 옛날을 그리워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우리 여성자원활동센터 자원봉사회는 새소망요양원(지금은 없어짐), 평안요양원에서도 목욕 봉사활동을 다니기도 하였다. 또한 독거노인 가구와 소년소녀가장 가구를 위하여 밀반찬을 만들어 가져다 주기도 하였으며, 일년에 두 번씩은 다문화가족(이주민 여성) 구성원들과 함께 한국 문화를 공유하기 위해 김치 만들기과 같은 프로그램을 하면서 서로 친숙해지는 활동을 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춘강 어울림터 식구들과 함께 나들이 활동, 천사의 집 친구들과도 신화월드, 아쿠아플라넷에도 가서 신나게 놀고 즐거운 시간을 갖기도 하면서 나는 내가 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나에게 새로운 기쁨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잊은 적이 없다.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조금은 뜸해진 활동들이지만 내 기억 속에는 지금도 아른하게 생각이 난다.

그리고 우리 여성자원활동센터 자원봉사회의 중요한 활동 중 빠트릴 수 없는 활동이 있다면 이동 빨래 봉사활동이다. 언제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어느 후원가가 우리가 속해 있는 평생학습센터에 이동 빨래 차량을 기증해주셨고, 그 이동 빨래 차량은 우리 단체에서 맡아 운영하게 되었다. 이동 빨래 봉사활동은 서귀포의 어려운 가구에 방문하여 빨래 봉사활동만이 아닌 청소도 해주고, 밀반찬도 만들어주는 등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활동을 해주었다.

여러 활동 중에 특히 한 곳이 생각난다. 우리는 늘 그 집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청소랑 빨래

를 해드리곤 하였는데, 한부모 가정이다 보니 갈 때마다 어린 친구들에게 정리정돈 하는 법도 가르쳐 주기도 하였다. 그런데 아무래도 그 친구들이 어려서인지 늘 그 순간뿐, 생활 습관을 변화시키기엔 더욱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 자원봉사회가 1999년에 창립되어 지금까지 23살이 되고 나는 그 중 22년 동안 함께 하였다. 처음 서귀포시자원봉사센터에서 기고문을 써달라는 요청에 당연히 사양했지만, 내가 지금까지 우리 자원봉사회 회원 중 가장 오랫동안 활동을 하면서 여성자원활동센터 자원봉사회의 기록을 남기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감히 펜을 들어 보았다.

코로나19 감염증이 시작되면서 우리는 늘 다니던 성요셉요양원(한달에 세 번 방문하여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어르신들 목욕하면 우리는 어르신들 옷 입히기, 머리 말리기, 청소 등을 하곤 하였다.) 방문이 잠시 멈춰져 있어서 많이 아쉽고,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잘 계신지도 궁금하지만 언젠가는 다시 갈 수 있을 것이란 믿음을 가지고 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 시설 방문 봉사활동은 어렵지만, 지역사회의 크고 작은 행사 지원 봉사활동, 자원순환 캠페인 활동 등 여전히 우리 회원들은 바쁘게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우리 여성자원활동센터 자원봉사회는 비록 회원 수가 많지는 않지만 늘 가족 같은 분위기 속에 모두가 하나의 마음으로 열심히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고 나는 우리 회원 모두를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자원봉사란 무엇일까?

이수인 · 개인봉사자



단순한 생각으로는 그저 나의 시간을 투자하여 남을 돕는 일에 쓰는 것, 단순하지 않다면, 스스로의 시간을 투자하면서 봉사 활동을 하지만 내가 소비한 시간에 따른 만족도는 사람의 생각, 마인드 기준이라고 생각한다. 작은 활동 속에서도 큰 의미를 둘 수도 있고 큰 움직임을 하더라도 스스로 의미를 알지 못하고 맹목적인 자원봉사라면 그것은 더 이상 자원봉사가 아닌 변질된 맹목적의 사회활동으로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무엇으로 측정이 힘들고 계산적으로 가기에 복잡한 활동이 되고 가볍게 생각하기엔 절대 가볍지 않는 자원봉사 활동. 이에 대한 정의는 사전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봉사에 실 참여하는 참여자 개개인의 생각, 마음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정의하는 게 맞는 거 같다.

나의 시간을 누군가를 위해 어떤 목적을 위해 대가를 받지 않고 행한다는 것이 요즘 시대에 있어서 결코 쉽게 이루어질 수 없는 활동이다. 스스로 자원하여 누군가를 돕는다는 행적이 그것을 행동하는 사람과 그런 행동으로 도움을 받음으로써 삶의 색깔이 달라진다면 이보다 더 좋은 남을 위한 이기적 즉 나를 위해 남을 돕는 일이 있을까 싶다.

누군가 그런 말을 하였다. 남을 돕는다는 것, 사람이 좋은 일을 하고 난 후의 자신에 대한 뿌듯함을 느끼는 것, 내가 내 기분 좋아지려고 누군가를 돕는 행동이 사람으로 가질 수 있는 가장 따뜻한 감정이라고 한다. 이런 감정을 착한 이기적이

라고 불려보고 싶다.

어떤 부수적인 필요를 통해 남는 시간에 봉사 활동이 시간으로 측정되면서 어떤 학생에게는 의무적인 기록을 남겨 요건이 되고 의미 있게 하는 좋은 시간으로 자원봉사 활동의 의미를 알고자 하는 자기 계발에 진심인 직장인도 있을 것이다.

여기서 시작의 의미는 다르지만, 공통점은 한 가지가 있다. 요건을 위해 의무적인 학생과 자기 계발에 최선을 다하는 직장인에게는 자신 몸을 일으켜 세워 자신이 필요한 곳에 자신의 활동력을 허락하여 남을 위해 나를 희생하는 것이다. 의무였다면 그것은 더 이상의 자원봉사 활동이라 할 수 없을 것이고 어떤 대가성을 바라는 요즘 세대에서는 봉사 활동이라는 거부감 먼저 느끼기 마련이지만 그 거부감을 슬쩍 외면하면서 봉사 활동에 무심히 끼어드는 사람들이 지금의 자원봉사라는 단체활동을 지금까지 이끌어온 게 아닌가 생각해 본다.

봉사 활동에는 학생 신분, 직장인 신분 선을 긋는 것이 아닌 남녀노소 각자 사회적 신분, 시선에 상관없이 자신의 재능과 시간을 자원봉사 활동의 종류에 맞게 사용된다면 봉사참여자의 삶과 봉사 활동의 질이 한층 더 향상되고 발전될 것이라고 지금 세대를 이어 다음 세대에 꼭 전해주고 싶다. 오늘의 봉사 활동이 살아있기 때문에 내일의 봉사 활동도 존재하는 것이라고.....



우수자원봉사자에게 간병비 지원해 드립니다

권은애 · 제주도자원봉사센터 사무처장



자원봉사센터에서 근무를 하다보면 자원봉사활동에 진심과 열정을 다하시는 분들을 만날 수 있다. 바쁜 일상 속 자신의 귀한 시간과 노력을 들이면서 이웃을 위해 봉사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알기에 그 분들이 무척이나 존경스럽다.

9월 26일부터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자원봉사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열심히 봉사를 해온 봉사자에 대한 보상의 일환으로, 우수자원봉사자에게 간병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지원대상은 1년 이상 제주지역 거주자로서 제주도내에서 자원봉사를 한 시간이 1365자원봉스포털 기준으로 1000시간 이상되는 봉사자 또는 그 배우자이다.

간병비 지급은 1인당 1회이며, 1일 10만원 이내 최대 50만원까지 가능하다. 예를 들어 1일 간병비용이 9만원일 경우, 최대 6일을 이용했다면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초과된 4만원만 개인이 부담하면 된다.

간병비 신청은 제주도 · 제주시 · 서귀포시 자원봉사센터에서 가능하며 도자원봉사센터에서 지원 확정을 승인 받고나서 간병인을 이용한 후 간병비를 청구하면 추후 지급해 주는 절차로 진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도자원봉사센터(☎710-8887), 제주시자원봉사센터(☎728-7523), 서귀포시자원봉사센터(☎760-3876)로 문의하면 된다.

2022 우수 자원봉사자 간병비 지원사업

지원 대상

1. 제주 최대 거주자 1년 이상
2. 제주도내 자원봉사 누적 1,000시간 이상자 본인 또는 배우자

지원 기준

1인당 총 1회 이용가능 / 1일 10만원 이내, 최대 50만원

지원 절차

1. 지원 신청서 작성
2. 신청서 접수
3. 간병인 선정
4. 간병비 지급
5. 신청서 접수

문의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 ☎ 064-730-4390

제주시자원봉사센터 ☎ 064-738-7523

서귀포시자원봉사센터 ☎ 064-738-0716

Jeju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

나비봉사단, 창단 첫해를 보내며

정덕숙 · 나비봉사단 단장



2022년 3월 창단식을 시작으로 오래도록 꿈꿔왔던 봉사단 활동을 전개했다. 이유는 단순했다. 청소년의 문화생활을 누릴 마땅한 공간이 없다는 게 문제였다. 성산읍에서 부모와 자녀들의 문화향유 공간이 없어 외지로 나가는 일이 잦았다. 성산에서 활개치고 성장할 청소년들의 활동공간을 확보해 지나치는 성산이 아닌 머무는 성산이 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광치기해변에서 출발한 4월 행사 ‘꿈의 공간을 걷다’는 청소년 공간을 희망하는 성산읍민의 갈증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었다.

봉사단원 중에서 손재주가 좋은 이가 나비 브로치를 만들고 후원회장은 마음껏 봉사활동을 펼치라고 봉사단 조끼를 후원했다. 다들 한마음이 되어 안내를 하고 활동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애를 썼다. 처음 해본 봉사활동을 토대로 미약한 서로간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더 봉사에 매진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게 했다.

봉사는 마음으로만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기에 기본교육을 받고 실제 현장에서 사람들을 만나 활동하는 중에 일어나는 다반사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전체적인 일정이 무난하게 흘러가게 된다는 걸 느낀다.

5월엔 어린이날 행사에 참여하여 안내를 하였으며, 6월엔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도배장판 교체봉사활동을 하였다. 7월엔 회원간 소통 워크숍을 거쳐 상반기 활동보고와 앞으로 진행할 일정을 조율하는 기회를 가졌다.

9월엔 해안 쓰레기 줍기를 하면서 환경오염에 대해 생각해 보는 계기를 만들었으며 9월 마지막 날에는 초중고 학생들과 주변 청소년 기관들에게 기부간식과 손소독 티슈를 준비해 나눔활동을 했다.

10월엔 회원들에게 ‘SNS의 모든 것’ 교육을

진행했다. 우리가 청소년공간을 확충시켜야 한다고 해도 아는 이가 적어 홍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인터넷이나 기타 다른 매체를 이용하여 우리의 활동을 알리고 청소년 문화공간을 늘려 나가는 데 동참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바람이었다. 회원들은 이 교육을 매우 의미 있게 받아들였고 다음에도 더 많은 교육이 이뤄지길 희망했다. 가끔은 회원들의 열정이 넘쳐 올라 그 기운을 받아서라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곤 한다. 11월에는 세계의 산후 보양식을 알아보며 시식하는 행사가 개최되었을 때 내빈 안내와 세계의 산후음식 스토리텔링을 담당해 활동하였다.

하나씩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마다 청소년 꿈의 공간을 조금씩 넓혀간다는 희망이 보인다. 초기에는 무조건 모든 행사마다 다 나와서 해야 하는 줄 알고 나온 회원들 중 누군가는 지나치게 봉사하는 일이 많아 힘들다고 하지만 봉사는 자발적이기 때문에 자신의 역량에 맞춰 해야 한다. 봉사단의 일정은 꾸준히 있기 마련이고 봉사단원은 각자 자신의 일과 생활 속에서 시간을 내서 나오므로 점차 적응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무엇보다 첫걸음을 떼었을 때 사람들의 조마조마한 시선들이 기억에 남는다. “저 봉사단이 제대로 하거나 할까? 얼마 하다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만 두겠지” 하는 불안을 내색하며 말리던 이들도 떠오른다. 그러나 성산에서 자녀를 키우고 양육하여 성인이 되어 내보낸 마당에 이대로 문화향유 공간 없이 떠도는 청소년을 외면하며 생을 마무리하기에는 살아야 할 날이 많다.

청소년의 꿈의 공간을 향한 작은 나비의 날갯짓이 많은 사람의 관심 속에서 훨훨 날아오르길 바란다. 

‘세계 관광1번지’ 서귀포시로 가는 열쇠 자원봉사자

김지석 · 서귀포시관광협의회 사무국장



최근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전 세계적으로 관광 트렌드가 급속하게 변하고 있다.

서귀포시도 급변하는 관광시장에 대응하고, 관광1번지 서귀포의 관광산업 회복을 위해 노력하면서 점차 관광산업이 활기를 찾아가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시민이 함께 공감하고 즐기는 문화예술관광 콘텐츠 개발과 미래지향적인 명품관광도시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서귀포시관광협의회와 여러 가지 힘든 여건 속에서도 곳곳이 각자 맡은 자리에서 친절과 미소를 잃지 않고 봉사하는 서귀포시 자원봉사자들이 그 중심에 서 있다.

서귀포시는 오는 23일 하영올레 가을 걷기축제인 ‘2022 서귀포의 가을, 하영올레 천고로다(天高路多)’와 야간 관광이벤트인 ‘서귀포 야호(夜好)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먼저 지난 10월 서귀포시가 주최하고 서귀포시관광협의회(회장 양광순) 주관으로 ‘2022 서귀포의 가을, 하영올레 천고로다(天高路多)’와 야간 관광이벤트인 ‘서귀포 야호(夜好)페스티벌’이 성황리에 열렸다.

‘하영올레 천고로다(天高路多)’는 시청 1청사에서 오전 9시에 출발하는 주간 걷기행사와 오후 5시30분 출발하는 야간걷기 행사로 꾸며졌다.

또 야간걷기 행사 종료 시점인 저녁 6시30분부터는 서귀포 칠십리시공원 내 특설무대에서 ‘서귀포 야호(夜好)페스티벌’이 펼쳐졌다.

이번 행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었던 데는 묵묵히 현장을 지키며 굿은일을 도맡아하는 이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바로 자원봉사자들이다.

자원봉사자들은 참가자들이 안전하게 코스를

걸을 수 있도록 길 안내에서부터 쓰레기 수거 등 다양한 자리에서 행사를 도왔다.

또 서귀포시관광협의회와 자원봉사자들은 새해 첫날부터 시민과 관광객을 맞이한다.

한겨울 바다 수영을 하며 희망찬 한해를 다짐하는 제24회 서귀포 겨울바다 국제펭귄수영대회가 내년 1월 1일 서귀포시 중문색달해수욕장에서 열리기 때문이다.

서귀포시관광협의회가 주관하고 서귀포시가 후원하는 이 행사는 겨울 바다 수영이라는 특별한 체험을 통해 묵은해의 시름을 바다에 던져버리고, 새해 소원을 빌며 희망찬 한해를 다짐하는 행사다.

이처럼 다양한 행사가 재개되면서 코로나19 사태 후 직격탄을 맞았던 관광산업이 다시금 활기를 되찾고 있다.

하지만 서귀포시가 관광1번지 명성을 되찾기 위해서는 시민과 자원봉사자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아무리 좋은 행사가 열린다 해도 시민들의 참여나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이 없다면 모두 헛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관광1번지 서귀포시는 모두가 먼저 웃고, 반갑게 인사하고, 주변을 정돈하며, 각 자의 자리에서 관광도시 마인드를 온 몸으로 실천할 때 완성된다.

사소하지만 보이지 않는 시민과 자원봉사자들의 작은 행동이 모여 큰 강을 이루고 그 강은 바다가 되어 세계 관광객들이 스스로 찾아오는 ‘세계 관광1번지 서귀포시’가 될 것이다. 

팬데믹 이후의 청소년 봉사 활동 짧은 생각

김대흠 · 아라누리 운영팀장



코로나19 팬데믹이 학교 운영에도 많은 변화가 주고 있다, 그 중 하나가 학생들 봉사 시간이 교외 활동을 코로나19로 인하여 활동을 못 하게 되었으므로 교내활동을 대체할 수 있게 되었다. 2년 시간이 지나고 코로나19 변이로 유행과 반감을 반복하면서 교외 봉사활동 시간 축소는 계속 유지되고 있다. 그 영향으로 순수하게 활동하였던 학생들도 있었지만, 진학을 위해서 반강제적으로 해야 했던 연 40시간의 봉사활동은 시간도 대폭 줄어들었고, 교내활동을 통하여 봉사 시간 이수가 가능해져 학생들은 교외 봉사활동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게 되어 청소년 봉사활동자를 필요로 하는 기관은 봉사자 수급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그동안 입시, 진학과 취업 때문에 봉사활동이 필수였다, 하기 싫어도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 돈 잘 버는 직장을 다니기 위해 봉사를 하였을 청소년, 청년들도 많았을 것이다. 그렇게 억지로 봉사활동을 시작했어도 긴 활동 시간 때문에 정기적으로 활동하면서 사람 냄새 느끼고, 수혜자분들이 감사 인사할 때, 학생들은 학교에서 느끼지 못하였을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 뜨거운 울림을 받아, 시작은 강제였을지 몰라도 끝은 감동과 우리나라 사회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생각, 다양한 경험을 쌓았다는 후일담을 많이 들을 수가 있었다.

십 여년 넘게 초등학교부터 중·고등학교 정규 교육과정을 여러 학교를 근무하면서 지켜보고 있다. 요새 교권이 추락하고 있고, 연예인들과 고액 연봉을 받는 프로스포츠 선수들이 학창 시절 때 학교폭력에 가해자로 지목되어 곤욕을 치르는 경우도 뉴스로 종종 볼 수 있다, 학교 현장은 학생들이 등교할 때부터 하교 때까지 생활 지도와 치열한 입시 압박에 교사들과 학생들은 하루하루가 보이지 않는 전쟁터이다. 이러한 입시 경쟁에서 학업과 관련 없다고 생각하여 학부모와 학생들의 민원에 교육부와 교육청은 코로나19 유행의 구실로 봉사 시간을 줄이게 되었다. 당장 학생들이 편해졌고, 학부모들은 공부할 시간 더 생겨서 좋다고 생각하지만, 가시적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정책 결정을 한 정책 결정자들과 입시에 중점을 두고 봉사 시간을 줄이라는 민원인들은 앞으로의 미래와 사회 배려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

점점 갈수록 세대 간의 갈등, 남녀 성별 갈등, 각 집단의 갈등 등 수많은 갈등으로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엄청난 손실과 상처를 받고 있다. 갈등이 없을 수가 없다고 하지만 이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배려이다. 그 시작은 인성교육이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교육 현장에서는 19세기 교육방식으로 교육받은 20세기 선생님으로부터 21세기 학생들

이 교육받고 있다. 빠르게 시대가 변화하고 있지만 교육 과정과 환경은 시대 변화를 못 따라가고 있다.

아직 사회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 많다. 장애인 시설과 정책이 많아졌다고 해도, 아직 장애인들은 지하철, 고속시외버스 등 일반인들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도 불편하고, 힘든 일 하면서도 정당한 근로의 대가를 받지 못하고 광장에 나와 투쟁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다, 우리는 공정한 사회를 요구하고 외치고 있지만, 그 공정에 소외되어온 사람도 많을 것이다. 이런 사회문제 하나하나 학교에서 다 배울 수 없고, 민감한 사회문제라 선불리 교사들과 학생들이 함께 토론할 수 없다는 게 지금 학교 현실이다. 학교에서 배우지 못하는 다양한 사회와 계층에 대한 이해와 배려는 아직도 입시가 최고인 상황에서 자원봉사 활동이 후순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어른들이 생각해야 할 문제이다. 



나의 제주도 봉사활동 이야기

배근휘 · 사)한국정보화농업인 서귀포연합회 사무국장



봉사활동이라고 해서, 거창할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먼저, 봉사의 개념부터 알아보자. 우리가 생각하는 봉사의 개념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대부분 “사고나 화재 현장에서 몸을 던져 사람을 구하고, 어려운 이웃에게 거금을 드리며, 사회 약자에게는 희망의 메시지나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이 봉사자’ 라고 생각한다. 즉, 의로운 행동을 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하지만, 필자가 생각하는 봉사란 “도덕과 윤리에서 시작하는 행동”이라 본다. 도덕이란 ‘자기완성(예의범절, 성품 등)을 위한 규범’이며, 윤리란 ‘인간관계에서 합당하게 행동함’을 의미한다. ... (중략) ... 그러나 봉사자는 모두에게 사랑을 받지는 못하다. 가정이나 가족도 풍족하지 않은데, 왜 굳이 남모르는 이들에게 베푸느냐는 가족의 불만과 유사할 것이다. 그럴 때는 다시 도덕과 윤리로 돌아가면 된다.

가정이나 가족이 풍족하지 않지만, 한 달에 한번 시간이 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봉사활동을 하고 나면, 부딪힘을 느낄 것이며, 혹여나 결과물이 나온다면 이는 본인의 성과라 할 수 있다. 다만, 성과를 위해, 봉사활동을 하면 재미도 없고, 수업생의 이력서에 쓰는 스펙용에 불가하니 본인이 하고 있는 일이나 취미와 유사한 쪽으로 활동을 한다

면, 시너지 효과가 나면서 재미있게 봉사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다 운이 좋아 작은 성과라도 난다면 본인의 만족감은 배가 될 것이다.

그러니 봉사활동이라고 나와 동떨어진 활동이 아닌, 내가 하는 일이나 취미 또는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으로 활동한다면, 매우 재미있는 봉사활동이 될 것이며, 이는 곧 도덕과 윤리가 깃든 나만의 봉사활동이 될 것이다.

반면, 봉사활동을 꾸준히 참여하는 봉사자는 주변의 칭찬도 많이 받겠지만, 생각지도 못한 비난도 많이 받는 것도 경험상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이러한 비난의 목소리를 듣고도 포기하지 않는 끈기가 중요하다. 봉사활동을 하는 여러분이 여기서 포기를 한다면 주위 사람의 비난의 목소리는 진리가 된다. 즉 “바보 같은 짓을 왜 해...”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본인이 추구하는 목표에 도달한다면 누군가는 당신에게 박수를 칠 것이다.

필자는 나 스스로 또는 봉사자에게 말한다. “목적지(또는 목표)에 도달해야 여정이 나온다.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힘든 파노라마 같은 여정은 없고, 그냥 실패한 패배자인 것뿐이다.” 자신의 하찮은 목표가 누군가에게는 웃음거리가 될 수 있고, 바보 같다고 보일지라도 당신이 목표에 도달한다면 모두가

당신에게 “대단하네”라고 한마디씩 할 것이다.

여기서 꼭! 하나 명심할 것이 있다. 목적에 도달했다고 해서 보상 같은 것을 기대하지 말라. 내가 이것을 해서 어느 정도 수익이나 인기를 기대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냥 본인이 했다는 경험담과 포기하지 않는 끈기와 도덕 및 윤리적 가치만 가지고, 살아가면 된다.

이처럼, 우리의 삶도 이와 같다.

당신이 하는 일이 다른 사람에게는 하찮은 일이라 여겨진다고 해도 당신이 추구하는 목표가 있다면, 이(또는 하는) 일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버티다 보면 당신은 누구 못지않게 이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당신이 추구하는 목표가 있다면,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버티고, 이겨내라. 필자가 당신을 응원하겠다. 모두 파이팅하자. 그리고 사랑한다.

[참고] 사랑이라는 단어를 착각하는 이들이 많다. 일반인들은 사랑을 “당신을 좋아한다”라고 착각한다. 하지만, 사랑의 본뜻은 “당신을 아끼고, 존중하는 의미”이다. 말인즉슨, 사랑의 사전적 의미는 다음과 같다.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 또는 남을 이해하고 돕는 마음”이다.

이것으로 “나의 제주도 봉사활동 이야기”를 모두 마칠까 한다. 



전체 글은 필자의 블로그에 게재했다.
위 QR코드를 이용해 초안 원본을 읽어 볼 수 있다.



가장 아름다운 말 ‘봉사’

문상금 · 시인



늦가을에 ‘어머니’라는 제목의 시 한 편을 썼다. 노랫말로 채택되어 12월에 작곡이 되어 1월에 서귀포문인협회 행사에서 불리어진다니 참으로 기쁘고 설레다. 이 지상에서 가장 뭉클하고 아름다운 말, ‘어머니’

그 다음으로는 ‘봉사’라는 말이 가장 아름답다는 생각을 한다. 돌이켜보면 대학졸업하고 곧장 중문관광단지에 있는 한국관광공사에 입사하여 25년 재직시절동안 사회공헌활동으로 온성학교, 정혜재활원, 살레시오의 집, 제일요양원, 제남보육원, 서귀포의료원 등 시설을 비롯 국제철인 3종 경기, 울트라 마라톤 경기, 소아암 백혈병 초청 행사 등 수많은 봉사활동을 정기적으로 하였다. 부끄럽지만 순수한 봉사라기보다는 그저 업무의 연장선상인 사회공헌 활동이었음을 고백한다.

그러나 그 긴 세월동안 아주 다양한 모습의 사람들과 그 사람들의 삶을 만났다는 것은 내 삶에서 아주 높은 가치를 부여한다. 남녀노소를 떠나 강한 모습들 뒤에 엿보이는 아주 연약하면서도 끈질긴 질경이 같은 목숨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으며, 인간적으로 ‘우리는 모두 소중하고 하나다’라는 가치관을 정립하게 되는 연결고리, 즉 아주 큰 시발점이 되었던 것이다.

어머니와 태아를 이어주는 붉은 탯줄처럼 큰 시발점이 되었다는 뜻은 나의 삶에 있어서 봉사라는 것은 몸의 일부분처럼 영원히 이어져 가리라는 의미와 다짐을 말하고 있음이다.

명예퇴직을 하고 곧장 재충전의 시간도 없이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은 바로 봉사활동이었다. 서귀포의료원에서 월요일 접수 안내 보조를 하였으며 의용소방대원으로 각종 화재시에 출동하여 화재 진압하시는 소방대원들을 보조하였으며 작가의 산책길 해설사로 서귀포의 문화와 예술을 널리 알렸고 서흥동 복지협의체 위원으로 어르신 생신상 차려드리기, 집안청소 및 도배해주기, 말벗이나 전화안부, 밑반찬 가져다주기 등 그리고 각종 행사시에 재능기부로 시낭송과 사회를 보기도 한다.

그 수많은 봉사활동 중에 모든 것이 소중하지만, 그 중에 작가의 산책길 해설사로 활동하고 있는 시간들이 특히 더 행복하고 보람이 있다. 정말 세월은 유수같이 흘러 해설사로 활동한지는 벌써 11년째가 지나고 있다.

서귀포에서 항상 음악이 흐르고 시낭송과 각종 공연들이 열리는, 가장 자유로움이 넘쳐나는 이중섭거리, 관광극장, 이중섭미술관, 이중섭거주지 등 곳곳에 배치되어, 그 자유로움과 서귀포다움을 만나고 느끼려 멀리는 해외와 전국각지에서 가까이 있는 제주시에서 오신 관람객들에게 서귀포의 예술과 자연과 삶과 문화를 소개하고 안내하고 해설해주는 그 봉사시간들은 정말 황홀하리만치 뿌듯함이 든다. 작가의 산책길 안에서 많은 사람, 많은 작품, 많은 예술가를 만났음은 정말 축복이다.

코로나 19 팬데믹의 어려움 속에서도 작가의 산책길 방문객들은 더 늘어나고 있으며 문화도시 서

귀포를 방문하는 모든 관광객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고 최선의 안내자가 되고자 끊임없는 봉사를 해나갈 것이다.

돌이켜보면 봉사하면서도 오히려 잔잔한 감동을 더 많이 얻고 오기도 하였다. 그림공부와 색칠공부를 도와주고 헤어질 시간, 미처 마음의 준비를 못한 상희가 눈이 빨개진 채로 손 흔들 때 비로소 발길을 돌렸던 살레시오의 집 마른 평상너머로 노란 국화꽃이 만발해져 있었다. 눈이 마주칠 때마다 씨익 흰 치아를 온통 드러낸 채로 수 백 번이고 웃어주던 한 청년의 집이었던 정혜재활원, 그 청년을 만난 이후로 나도 사람들과 대면할 때마다 더 활짝 웃었고 더 따뜻하게 인사를 하곤 하였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이야기가 그림과 글씨로 한 휴식공간을 가득 채워놓고 있었던 온성학교의 그 먹먹함 속에서 나무처럼 정말 열매와 몸통까지 다 내어줄 수도 있구나 느꼈으며, 요셉요양원과 제일요양원에서 만났던 그 어르신들의 맞잡은 손의 차가운 체온이 늘 가슴 아팠다. 이북이 고향이라던 어느 어르신은 봄날, 창가 의자에 앉아 하염없

이 떨어지는 자목련 꽃잎을 보며 “징그러워, 세월이 참 징그러워” 하시곤 하셨다, 그 모습이 너무 가슴 아파서 나는 ‘자목련’이란 제목으로, 시 두 편을 써주었다.

갈수록 고립되어지고 현대화되어가는 일상에서 마음의 양식, 영혼의 양식들이 더 필요해져가고 있다. 따뜻한 말 한 마디와 관심들도 더 필요해져가고 있다.

며칠 전에는 관광극장 앞에서 손수 만든 수제 차와 다과를 오고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차 봉사하시는 분을 만났다. 생각지도 못했던 따뜻한 차 한 잔에 모두들 얼굴이 상기되었고 생기가 돌았다.

평생을 봉사로 삶을 마감하신 마더 테레사가 남긴 말씀들을 참 좋아한다. 자, 이제 사랑의 표현을 봉사로 실천해 볼 시간이다.

‘당신이 오늘 베푼 선행은 내일이면 사람들에게 잊힐 것이다. 그래도 선행을 베풀어라.’

‘사랑은 그 자체로 머무를 수 없다. 그렇다면 의미가 없다. 사랑은 행동으로 이어져야 하고 그 행동이 바로 봉사이다.’ 

- 992년 「심상」 등단
- 시집 「겨울나무 다들 집으로 간다」 「누군가의 따뜻한 손이 있기 마련이다」 「꽃에 미친 여자」 「첫사랑」 「루즈 바르기」
- 제1회 제주신문문학상, 제4회 서귀포문학상
- 전)서귀포문인협회장, (현)작가의 산책길 해설사회 회장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봉사자 메시지



나성순
서귀포시새마을부녀회

내가면 남동생이 행하 나는
동생스럽고 내 주위에 모든 데서
웃음과 희망과 정의로 빛나네
동 함께 나누는 사랑과 나눔
함께 할 겁니다 서귀포시 새마을부녀회
사랑 나 성순



김은희
삼성-나,너,우리봉사단

식장근무후 복원이행 하고있지만
작은 힘이나마 보태려고 자원봉사에
나타봉니다 저보다 더욱 힘들텐데
내심하지 않고 열심히 봉사하는
봉사자들을 볼때마다 힘이됩니다
남성-나너봉사단 김은희



최순자
서귀포시여성자원활동센터자원봉사회

오늘은 봉사라 이 나오는
리구 너무 너무 멋진데
여심자원 봉사 센터
최 순자



신현경
서귀포시 관광협의회

자원봉사의 힘!
우리의 희망
자원봉사자 항상
응원합니다
서귀포시관광협의회 신현경



김옥란
모다드림봉사단

‘봉사’라는 그 귀중한 이름
내 이름과 담담아 귀대함나
서귀포 모다드림 봉사단
김 옥란



양성임
양지20봉사회

자원봉사자의 승수하고
약물한 마음은 고개
눈은하에 이겨드려고하여
양지20봉사회 양성임



문경옥
성산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생여력으로 강한일
봉사하는 인생!
너만나면 평생 봉사허병
고해가게 마음...
성산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문경옥



김효석
제주특별자치도 자율방재단

봉사활동을 통해 보람도 느꼈지만
과정도 느꼈습니다
완으로 이러한 문제는 봉사자만 해결하는
마음을 통해 극복하고자 합니다
귀담을받자기도 자율방재단
방관회장 김 효석



이정녀
참!좋은사랑의밥차 운영위원

봉사하는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 ~
저도 봉사운영위원
이 정녀



강승효
따뜻한마음을가진사람들의 모임

희망이 빛을 발산하는 자원봉사자
여러분 항상 응원합니다
따.사.모 봉사회 강승효



강형길
누리보듬봉사단

오늘 우리 함께
널 더 보자
누리보듬봉사단 강형길



김수희
서귀포직할여성의용소방대

봉사활동 서로 나누면 두배이상
기쁨이 됩니다.
모두 봉사열력 응원하세요.
서귀포직할여성의용소방대
본부장 김 수희



현선미
소비자교육중앙회 서귀포시지회

가끔 봉사활동에서 봉사자들이
소통부족을 느낍니다. 인간관계의
첫 눈발인 소통. 그 기술을
지부터 연습하며 보람과 행복의 순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비자교육중앙회 서귀포지회
현 선미



이명성
어우령건축기술봉사회

‘산으로 봉사한다’
지구행이 함께하겠습니다
어우령건축기술회
이명성



이창용
모다드림봉사단

태극정사 8강가원!
서귀포시 자원봉사
대한민국 석권기원!
모다드림봉사단 이창용

2022년을 빛낸 자원봉사자

제17회 전국자원봉사자대회 정부포상

① 대한적십자사 서귀포적십자봉사회 강미자씨

1991년도부터 대한적십자사에서 운영하는 지역봉사회와 인연을 맺은 후 현재까지 약 31년 동안 자원봉사에 매달려온 강미자씨가 2022년 12월 5일, 연세대학교 백주년기념관 콘서트홀에서 열린 제17회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식에서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으로부터 국무총리상을 전수받았다.



그녀의 주요 공적으로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의료진 보조 활동(222회 1,210H)을 비롯해 거리두기로 중단된 어르신 밥차사업을 식료품 키트 형태로 꾸려 약 2년간 찾아가는 배달서비스 전개, 장애인 활동보조, 돌봄서비스 지원(240회 935H), 도심 속 플로깅 봉사를 통한 제주환경 파수꾼 역할(48회 216H), 농번기 일손 부족, 농가 시름에 앞장선 봉사활동(15회 71H), 문화·체육 행사 지원으로 스포츠 메카 역할(181회 987H), 세월호 계기, 재난 복구(16회 93H), 헌혈 기부문화를 통한 시민성 향상 활동(69회 612H), 소록도, 추자도와 해외 유니세프를 넘나드는 봉사(20회 162H), 전문 자원봉사자 육성으로 봉사문화 질적 향상(41회 154H), 기부문화를 통한 기부문화 확산(2011년~2013년), 자원봉사 저변 확산 운동 및 캠페인(316회 788H)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전방위 봉사활동을 전개해 왔다.

특히 그녀의 전방위 봉사활동 역량 배경에는 모다드림봉사단, 누리보듬봉사단, 토탈뷰티코디 전문자원봉사단, 서귀포여성발전연대, 해양오염봉사단, 자연보호 서귀포지회봉사단, 지역장애인지원협의회, 대한적십자사 서귀포지구협의회, 서귀적십자봉사회, 행복나눔봉사단 등 무려 11개 봉사단체에 소속돼 있으면서 오랜 경험이 축적된 것으로 풀이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पुलिस봉사단 오원종 이사

오원종 이사 역시 어려운 여건과 환경 속에서도 희생과 봉사정신을 갖고 창의적이고 열정적으로 다문화가족, 불우 소외계층의 복리증진과 인권신장을 위한 봉사활동(주거환경개선사업, 방문 봉사활동)에 솔선하여온 공로로 정부포상(국무총리)이 확정되었다. 시상은 12월 16일,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에서 주관하는 봉사자대회에서 수상하게 된다.



특히 우범 청소년 선도보호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들의 정신적인 지주로서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기여해온 공이 높이 평가된 것으로 풀이된다.

그의 주요 공적으로는 청소년 선도보호 봉사활동 전개(13년 5월), 다문화가정 지원 봉사활동 전개(15년 10월), 불우 소외계층 지원 봉사활동 전개(13년 10월), 준법 질서 확립을 위한 자율 방법 활동 및 방역 활동 전개, 혼혈인 가족 지원 봉사활동(2회), 다문화가족 차별금지 캠페인 전개(8회), 다문화가족 문화탐방(2회, 성산농협 지원), 혼혈인 및 다문화가족 차별금지법 발의를 위한 공청회 지원 등을 손꼽고 있다.

③ 서귀포모범운전자회 강승희 회장

강승희 회장은 1994년 7월 서귀포시모범운전자회에 가입하여 꾸준히 활동을 하던 중 2021년 1월에 회장으로 취임하였고, 이후 회원들의 봉사활동을 위한 체계적이고 창의적인 기획력을 선보이며 현재까지 변함없는 열정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지역에서 개최되고 있는 체육행사 및 지역문화 행사에 적극 동참 하였으며 학생들의 안전한 등교를 위해 학교 앞 교통 봉사를 수년간 실시해 왔으며, 특히 서귀포시 3대 시책 추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한 줄 주차 정책과 서귀포시 교통문화 향상에 남다른 공적이 있었다. 이에 국민추천으로 정부포상을 상실했지만, 아쉽게도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수상자에 머물렀다.



올 한 해를 빛낸 ‘아름다운 家’의 사람들

① 금장 수상자에 이해숙씨

바르게살기운동 동흥동위원회, 산남새마을금고 부녀회, 서귀포재향군인회 여성회 등 복수의 봉사단체를 통해 전방위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이해숙씨가 전년도에 이어 금장에 다시 이름을 올렸다.

② 은장 수상자에 이영미씨

대정읍새마을부녀회, 대정적십자봉사회, 제주 최남단로터리클럽 등 여러 봉사단체를 통해 지역사회와 봉사활동에 매진하고 있는 이영미씨 역시 전년도 동장에 이어 올해에는 은장의 영광을 안았다.

③ 동장 수상자에 강미자씨

대한적십자사서귀포시지구협의회, 서귀적십자봉사회, 자연보호서귀포시지회 등 여러 봉사단체를 통해 꾸준히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강미자씨가 제17회 전국자원봉사자대회를 맞이하여 정부포상을 수상하는가 하면 서귀포시가 자체 제정, 수여하고 있는 ‘아름다운 家’ 동장에도 이름을 올렸다..



은장 수상자 이영미

대정읍새마을부녀회

전년도 동장에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던 때가 엇그제인 것 같은데 벌써 1년이 또 되었네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섬없이 달려오다보니 그게 또 은장으로 선정되었네요.

올해 162회 477시간의 봉사활동이 기록됐다는 소식인데, 사실 봉사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 횟수와 시간적 개념은 잊고 삽니다. 그저 어려운 이웃과 지역사회를 위하는 일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가서 자원봉사에 매진할 뿐이지요.

앞으로도 할 수 있을 때까지 ‘봉사’라는 저의 길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동장 수상자 강미자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서귀적십자봉사회

대한적십자사서귀포시지구협의회, 서귀적십자봉사회, 자연보호서귀포시지회 등 11개 단체에 소속돼 31여년 동안 봉사활동으로 정부포상을 받았는데, 서귀포시에서 선정하는 동장에도 선정되었다는 소식에 한편으로는 부끄럽고 한편으로는 봉사자님들께 미안함을 전합니다.

여러 봉사자님들도 그렇겠지만, 상을 받으려고 봉사를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저 봉사가 좋고, 내 삶의 천직이고, 남을 돕는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묵묵히 이어가고 있는 것이겠지요.

봉사를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사회가 조금이나마 밝아진다면 저 역시 멈추지 않고 더욱 매진해 나가겠다는 신념을 밝힙니다.

‘아름다운 家’ 금은동장 수상자 미니 인터뷰



금장 수상자 이해숙

바르게살기운동 서귀포시 동흥동위원회

봉사는 멈출 수 없는 저의 평범한 하루 일상입니다. 봉사와 상은 전혀 별개의 문제인데, 저에게 자꾸 큰 상을 주네요. 2015년 동장에 이어 전년도와 올해 금장 2관왕에 선정되었는데, 자칫 상으로 인해 봉사로 이어지는 일상에 결림돌이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올해 143회 534시간의 봉사시간이 기록되었다고 하는데, 봉사시간 또한, 연연하지 않고 그저 외롭고 힘든 곳이라면 제가 할 수 있는 봉사로서 묵묵히 보답해 나가겠습니다.

월 우수봉사자 얼굴들

서귀포시는 매월 우수봉사자를 선정하여 서귀포시장 명의의 인증패를 수여하고 있는데, 2월 우수봉사자로 고서현씨, 3월 우수봉사자로 임인철씨, 4월 우수봉사자로 현애숙씨, 6월 우수봉사자로 최순자씨, 7월 우수봉사자로 정정화씨, 8월 우수봉사자로 문선옥씨, 10월 우수봉사자로 강영희, 11월 우수봉사자로 이영미씨가 선정되었다.



2월 우수봉사자 고서현
개인봉사자



3월 우수봉사자 임인철
개인봉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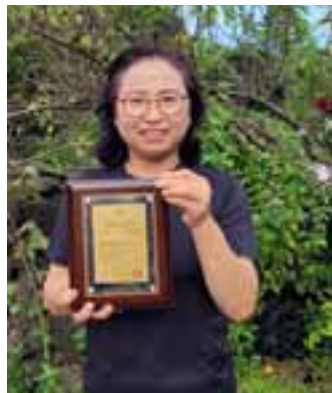
4월 우수봉사자 현애숙
서귀직할여성의용소방대



6월 우수봉사자 최순자
누리보담봉사단



7월 우수봉사자 정정화
아이돌봉사회



8월 우수봉사자 문선옥
동부폴리스



10월 우수봉사자 강영희
모다드령 팍!팍!봉사단



11월 우수봉사자 이영미
대정새마을부녀회

2022년 우수자원봉사자 표창 현황

국무총리 표창

성명	소속	비고
강미자	서귀적십자봉사회	2022 전국자원봉사자의 날 기념
오원중	제주특별자치도폴리스봉사단	2022 전국자원봉사자의 날 기념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성명	소속	비고
강승희	서귀포경찰서 모범운전자회	2022 전국자원봉사자의 날 기념
이해숙	여성자원활동센터자원봉사회	코로나접종센터 헌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표창

성명	소속	비고
최순자	누리보듬봉사단	서귀포의료원개원기념
고희열	여성자원활동센터자원봉사회	2022 서귀포시자원봉사자만남의 날 기념
오현정	서귀포불교자비봉사회	2022 서귀포시자원봉사자만남의 날 기념
이정숙	누리보듬봉사단	2022 서귀포시자원봉사자만남의 날 기념
강순애	성산읍새마을부녀회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자의 날 기념
김미령	여성자원활동센터자원봉사회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자의 날 기념
김연심	대정읍새마을부녀회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자의 날 기념
김춘화	중문적십자봉사회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자의 날 기념
김형규	개인봉사자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자의 날 기념
오영매	서귀포불교자비봉사회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자의 날 기념
조명희	아이돌봉사회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자의 날 기념
조인희	안덕파출소자율방범대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자의 날 기념
현선미	소비자교육중앙회서귀포시지회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자의 날 기념
단체	대신여성의용소방대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자의 날 기념

서귀포시장 표창

성명	소속	비고
오재민	삼성-나, 너, 우리봉사단	봉사단 만남의 날 기념
이영희	사랑하늬	2022년 환경의날 기념 행사
강혜정	모다드령봉사단	2022 서귀포시자원봉사자만남의 날 기념
김상기	어우렁봉사단	2022 서귀포시자원봉사자만남의 날 기념
강영아	행복드림비전센터	2022 서귀포시자원봉사자만남의 날 기념
홍윤경	대정읍새마을부녀회	2022년 서귀포시 중무식

한국자원봉사협의회장 표창

성명	소속	비고
이화진	사랑하늬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자의 날 기념

축하합니다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장 표창

성명	소속	비고
김애운	대정적십자봉사회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자의날 기념
강성휴	제주특별자치도폴리스봉사단	2022 전국자원봉사자의 날 기념
김기영	대신여성의용소방대	2022 전국자원봉사자의 날 기념
김영호	바르게살기운동서귀포시지회	2022 전국자원봉사자의 날 기념
박영실	성산읍새마을부녀회	2022 전국자원봉사자의 날 기념
오다빈	삼성여자고등학교	2022 전국자원봉사자의 날 기념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장 표창

성명	소속	비고
이경심	대신여성의용소방대	2022 전국자원봉사자의 날 기념
한지연	바르게살기운동서귀포시지회	2022 전국자원봉사자의 날 기념
단체	서귀포신용협동조합	2022 전국자원봉사자의 날 기념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협의회장 표창

성명	소속	비고
강형석	세계유산본부	2022 서귀포시자원봉사자만남의 날 기념
채금숙	바르게살기운동 서귀포시성산읍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자의날 기념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장 표창

성명	소속	비고
김 희 락	대정고등학교	2022 서귀포시자원봉사자만남의 날 기념
고 지 운	삼성여자고등학교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자의날 기념

서귀포시자원봉사센터장 표창

성명	소속	비고
김 은 희	삼성-나,너,우리봉사단	봉사단 만남의 날 기념

서귀포시자원봉사센터장 감사패

성명	소속	비고
현정희	서홍새마을금고부녀봉사단	서홍새마을금고 제43회 정기총회
문영옥	삼성-나,너,우리봉사단	봉사단 만남의 날 기념
단체	산남새마을금고	2022 서귀포시자원봉사자만남의 날 기념
단체	자연보호서귀포시지회	2022 서귀포시자원봉사자만남의 날 기념
단체	제일교회봉사단	2022 서귀포시자원봉사자만남의 날 기념
고복영	개인봉사자	2022 서귀포시자원봉사자만남의 날 기념
김미혜	개인봉사자	2022 서귀포시자원봉사자만남의 날 기념
강승호	센터 운영위원	2022 서귀포시자원봉사자만남의 날 기념

알아두기

자원봉사 수요처 인증기준

서귀포시 수요처 안내

자원봉사자 종합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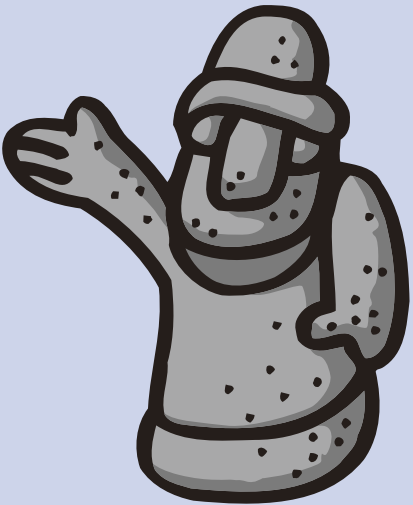
1365자원봉사로포털 회원가입 안내

자원봉사활동 실적 확인서 발급 안내

자원봉사 마일리지 포인트제

자원봉사 마일리지 포인트 적립 및 차감 기준

자원봉사활동 인정 기준



자원봉사 수요처 인증기준

■ 수요처란?
지역사회에서 자원봉사자에게 업무적인 도움을 받고자 하는 비영리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기타 공익단체를 말하며, 자원봉사자를 양성하고 관리하는 법인, 단체, 시설 중 자원봉사자 실적관리 사업 수행에 적합하다고 자원봉사센터에서 인정하여 지정한 활동처

■ 수요처 등록기관

공공 부 문	공공부문	중앙정부 및 시도, 시군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공사 및공단
	공공시설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복지, 후생을 위해 설치한 시설(공립학교, 공립병원, 국·공립도서관, 사회복지시설, 시민회관 등)
민 간 부 문	민간기관	공익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기관 및 비영리 단체
	기업체	공익목적의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시설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공익목적의 비영리 복지, 보건·의료·요양·문화·체육 등의 시설



■ 수요처 등록
신청서류 접수 후, 15일 이내 심사 결과 회신



■ 부적절한 수요처

- 정치적, 종교적, 영리적 목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한 경우
- 자원봉사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관리를 부적절하게 하는 경우
- 일감 및 실적을 허위로 입력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수요처 등록 후 최근 2년 이상 활동 내용 또는 실적이 없는 경우
- 어린이, 청소년 등 자원봉사자에 대한 안전관리가 소홀한 경우
(자원봉사 기초교육 미실시,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자원봉사자 피해발생 등)
- 자원봉사 수요처 점검에 불응 또는 고의적으로 회피한 경우
-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또는 법적인 조치가 취해진 경우

서귀포시 수요처 안내

■ 시내권[동홍동, 서홍동, 송산동, 정방동, 중앙동, 천지동] 2022.11.30.기준

수요처	전화번호	주소
(사)제주마을문화진흥원	070-8990-9999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산간동로 8462-2, 2층
(사)제주올레	064-762-2173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정로 22, 2층
(재)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	064-763-3973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앙로 105 서귀포시청
담쟁이지역아동센터	064-732-3315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홍중로27번길 30 1층
동신타이디온지역아동센터	064-763-7879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동홍중앙로 13
동홍동주민센터	064-760-4703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동홍로 104
바르게살기운동서귀포시협의회	064-762-1839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앙로182번길 49
보목곶터작은도서관	064-732-3506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칠십리로 483-1 2층
삼매봉도서관	064-760-3702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성중로153번길 15
샘솟는지역아동센터	064-733-9182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산간동로 7983
서귀포YWCA	064-762-1400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부도로 3
서귀포기적의도서관	064-760-3726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일주동로 8593
서귀포도서관	064-762-4307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앙로150번길 4-1
서귀포보건소	064-760-6558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앙로101번길 52
서귀포시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	064-732-7081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일주동로 8642 2층
서귀포오석학교	064-762-2487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동로 43-2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	064-762-0211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태평로512번길 9
서홍동주민센터	064-760-4745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앙로 125
송산동주민센터	064-760-4506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소암로 4
아름다운가게 서귀포점	064-762-0098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앙로 167
정방동주민센터	064-760-4541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태평로421번길 7
제주권역재활병원	064-730-9128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동문로 1
중앙동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064-733-2004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동로32번길 6-1
중앙동주민센터	064-760-4561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정로 123 1층
천지동주민센터	064-760-4593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정로47번길 3
풍낭작은도서관	064-733-4682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동홍중앙로 56
행복드림비전센터	064-733-9490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산간동로 8025

■ 효돈동

수요처	전화번호	주소
(사)아동청소년보호협회서귀포시지회	064-732-0076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하신상로 60
하효마을회	064-767-3016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하효중앙로 132
효돈동주민센터	064-760-4623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선동산로 26
동부도서관	064-760-3692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일주동로 8232

■ 영천동

수요처	전화번호	주소
미소노인복지센터	064-767-3040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검은여로 175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064-732-2352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인정오름로 24
영천동주민센터	064-760-4664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토평로 15
제주한라전시관	064-710-6862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돈내코로67번길 19

■ 중문동

수요처	전화번호	주소
도서관운영사무소서부도서관	064-760-3714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346
중문동주민센터	064-760-4818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1100로 30
중문요양원	064-738-2010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일주서로728번길 74
제주노인복지타운	064-738-2313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일주서로670번길 4
국제평화재단	064-735-6536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227-24

■ 예래동

수요처	전화번호	주소
색달노인복지센터	064-738-3369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색달중앙로121번길 33
상예1동마을회	064-738-0281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예래로144번길 42
예래동주민센터	064-760-4864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예래로 82

■ 대천동

수요처	전화번호	주소
대천동주민센터	064-760-4785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도순로 44
서귀포시드림스타트	064-760-6446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산간서로 97-1
서귀포시청소년성문화센터	064-760-6451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산간서로 97-1 지하1층
용흥마을회	064-739-2814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용흥로 67
용흥작은도서관	064-739-3669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용흥로 55 2층
제주해군사랑작은도서관	064-905-5245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이어도로 640 2층
LH강정작은도서관	064-739-3663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청로25번길 9
강정마을회	064-739-2067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통물로 125-10

■ 대륜동

수요처	전화번호	주소
대륜동주민센터	064-760-4754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중로 55
서귀포시관광협의회	064-739-7201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월드컵로 33 제주월드컵경기장 2층
서귀포시자원봉사센터	064-738-0176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월드컵로 33 제주 경기장내 2층
사회복지법인예사랑어린이집	064-738-1306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상로 9
새서귀포마을회관	064-739-5366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동로27번길 6-7
서귀포해양경찰서	064-793-2597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남로 11
서호동마을회	064-739-3596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로 33
제남아동센터	064-739-1020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호근로183-11
피어나리다함께돌봄센터	064-738-3314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 공무원연금공단 1층
호근동마을회관	064-739-1938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호근남로 6

■ 안덕면

수요처	전화번호	주소
감산지역아동센터	064-794-6497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감산중로16-13
동광해바른작은도서관	064-794-2287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로100번길 12
아름재가장기요양기관	064-792-5084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일주서로2048번길 237-1
안덕면동광리사무소	064-794-8722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로 126
안덕면사무소	064-760-4315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서서로 74
안덕면상창리사무소	064-794-9726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한창로 102
안덕면상천리마을회	064-792-6015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병악로 408-3
안덕면서광동리사무소	064-794-9373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동로17
안덕산방도서관	064-760-3742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서서로 44

■ 표선면

수요처	전화번호	주소
가마지역아동센터	064-787-3320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일주동로 6276 2층
성읍지역아동센터	064-787-8243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관정로 105-2 표선수협 3층
토산2리사무소	064-787-3308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토산중앙로16번길1
표선노인복지센터	064-787-0100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관정로 10-29
표선면 세화2리사무소	064-787-3310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일주동로 6276
표선면 표선리사무소	064-787-6624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동서로 234
표선면가시리사무소	064-787-1305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로565번길 20
표선면사무소	064-760-4418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중앙로 74
해병대표선전우회	064-787-7077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관정로 73
(사)오션케어	064-787-5152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변영로 2524

■ 남원읍

수 요 처	전화번호	주 소
남원노인복지타운	064-764-9922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남한로 127
남원읍 의귀리사무소	064-764-0185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한신로 207
남원읍 태흥3리사무소	064-764-0184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삼덕로 3
남원읍사무소	064-760-4117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태위로 695
남원읍태흥2리사무소	064-764-0183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태신로 14
동부보건소(주간보호센터)	064-760-6111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태위로 527
서귀포시공립혼디지역아동센터	064-764-4466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남조로381번길 7-1
선광재가노인복지센터	064-764-0911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태위로 480-15
신례1리마을회	064-767-2444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중앙로 37
위미2리마을회	064-764-1303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태위로 197
의귀마을영농조합법인	064-764-9771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서성로 955-117
제남도서관	064-766-4600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체육관로 183
하례리 생태관광마을협의회	064-733-8009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로 393-1

■ 성산읍

수 요 처	전화번호	주 소
동부종합사회복지관	064-783-0364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일출로 14-11
삼육지역아동센터	064-784-3625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오조로 130
성산읍고성리사무소	064-782-2378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서성일로 1222번길 36
성산읍시흥리사무소	064-782-3180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일주동로 3916
성산읍신천리사무소	064-787-0157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신천서로 5
성산읍신평리사무소	064-782-0311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신평상동로 4
신산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064-760-4295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일주동로 5101
신평지역아동센터	064-782-9573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신평상동로14번길 6
서귀포시성산읍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064-783-1512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서성일로1222번길 36

■ 대정읍

수 요 처	전화번호	주 소
(사)대정여성농업인종합지원센터	064-794-4497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대한로 9
국립국제교육원 영어교육센터	064-793-5259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글로벌에듀로304번길 35
대정읍 통일1리사무소	064-794-2276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하모로 99
대정읍구억리사무소	064-794-8186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중산간서로 2362
대정읍보성리사무소	064-794-2617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추사로 93-7
대정읍사무소	064-760-4016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중앙로 20
대정읍일과2리사무소	064-794-3094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서림로 8
발자국화석 관리소	064-710-6804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형제해안로 192
송악도서관	064-798-6800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하모로149번길 12
신평리사무소	064-794-3623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중산간서로 2610
제주추사관	064-710-6803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추사로 44

자원봉사자 종합보험

■ 자원봉사자 종합보험이란?

자원봉사자들이 안전한 환경속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봉사활동 중 발생하는 각종사고에 대한 경제적 심리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하는 보험으로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위험으로부터 자원봉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자원봉사 정책 추진기관별 자원봉사센터(1365자원봉사포털), 한국사회복지협의회(VMS),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DOV-DOL)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 자원봉사 종합보험 어떻게 가입하나요?

1365자원봉사포털(www.1365.go.kr) 회원가입과 동시에 자원봉사 종합보험 지원대상

■ 자원봉사 종합보험에서 인정되는 봉사활동이란?

- 자원봉사활동(정규활동, 특별활동 포함)에 직접 참여중인때
- 자원봉사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활동 장소에 있는 동안
- 자원봉사활동을 위한 활동 장소와 피보험자 주소지와의 통상적인 경로 통행 중
- 사전에 계획된 공식 활동(숙박 포함)의 경우는 모두 포함
(단, 음주 이탈 등 사회통념에 어긋난 사유로 인한 사고는 제외)
- 재난복구활동 시 재난에 대해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도 보장
(단, 음주 이탈 등 사회통념에 어긋난 사유로 인한 사고는 제외)

■ 구비서류 안내

구 분	기본서류
삼성화재	보험금청구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위임장
자원봉사자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진단서(초진차트)
	진료비 세부명세서
	입 · 퇴원확인서
	약제비 영수증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활동확인서

■ 상해보험 청구절차



■ 2022년 자원봉사 종합보험 보장내용(보장기간 : 2022.05.01. ~ 2023.04.30.)

보장담보	보장금액	비 고	보장내용 - 상세
1. 상해사망 (15세 미만 제외)	2억	기준담보	우연한 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 약관에 따라 보상
2. 상해후유장애	2억	기준담보	우연한 상해사고로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약관의 장애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후유장애 보험금으로 지급
3. 상해입원일당	10만	기준담보(7만) 추가특약(3만)	우연한 상해 사고로 병/의원에 입원하였을 경우 입원 1일에 대하여 보험가입금액을 보상, 1회 입원당 180일한도로 지급(1일부터)
4. 상해통원일당	5만	기준담보	상해사고로 병/의원에 통원하였을 경우 통원1일에 대하여 보험가입금액을 보상(30일한도)
5. 식중독보상금	1백	기준담보	음식물의 섭취로 인해 중독이 발생하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병원 또는 의원에 2일 이상 입원 치료한 경우 보상
6. 화상진단비	3백	기준담보(1백) 추가특약(2백)	약관의 화상을 입고 화상의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는 경우
7. 골절진단비	3백	기준담보(2백) 추가특약(1백)	상해사고로 약관의 골절분류표에 정한 골절로 진단 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보상 (치아의 파절 및 파절치 포함)
8. 화상수술비	3백	기준담보(2백) 추가특약(1백)	약관의 화상을 입고 화상의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는 경우
9. 골절수술비	3백	기준담보(2백) 추가특약(1백)	골절 사고를 당하여 골절분류표에 정한 골절로 수술시 보상

보장담보	보장금액	비 고	보장내용 - 상세
10. 자연재해 상해사망	5억	기준담보	자연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약관에 따라 보상
11. 얼굴성형비용	5백	기준담보	상해 사고로 치료를 받고 그 결과 안면부 성형 수술 시행 시, 수술 1cm당 14만원, 500만원 한도로 보상
12. 성폭력범죄 상해보상금	5백	기준담보	성폭력 범죄피해 발생으로 1개월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은 경우 보상
13. 성폭력범죄 보상금	1천	기준담보	약관 기재 성폭력 피해 발생 시 보상
14. 의사상자 상해위험	2억	기준담보	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상해를 입은 경우 보상
15. 특정전염병 보상금	1백	기준담보	특정전염병 분류표에 정한 전염병 치료 시 보상
16. 자원봉사자 배상책임	2억	기준담보(1억) 추가특약(1억)	자원봉사자가 봉사활동중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 손해 보상
17. 주최자배상 (영업배상)	5억	기준담보	자원봉사센터 주관 행사 및 워크샵 시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 손해 보상
18. 교차배상	16. 2억	기준담보	피보험자 간에 발생하는 배상책임도 추가담보
	17. 5억	추가특약	
19. 자기부담금 지원비용 보장	5십	추가특약	자동차 자차 사고 후, 자동차보험에서 지급하지 않는 자기부담금 비용 보장
20. 구내치료비 (자연재해)	1억	기준담보(5천) 추가특약(5천)	- 자원봉사센터 소속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활동 등 상해의료비 - 자연재해로 인한 상해의료비, 센터주관 행사 및 워크샵 포함
21. 정신적피해 법률비용	1천	추가특약	자원봉사자 정신적피해에 따른 소송을 당하거나 할 경우 법률비용 1천만원 담보 (자기부담금 방어소송 0원, 공격소송 50만원)
22. 폭발,화재,붕괴상해 사망(15세미만제외)	5억.	추가특약	폭발, 파열 및 화재(벼락포함)사고, 건물의 붕괴, 침강 또는 사태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23.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5억	추가특약	폭발, 파열 및 화재(벼락포함)사고, 건물의 붕괴, 침강 또는 사태사고로 인한 상해로 장해 분류표에정한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24.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	5백	추가특약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공소제기 또는 공판철차에 따른 재판 진행시 변호사비용
25. 교통상해 입원 일당	5만	추가특약	교통사고(차량운전중, 탑승중,미탑승시)사고로 병/의원에 입원하였을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1회 입원당 180일 한도로 지급(1일부터)
26. 무보험차 상해사망	5억	추가특약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 약관에 따라 보상
27. 무보험자차 상해후유장해	5억	추가특약	자원봉사 활동중,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고로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약관에따라 보상

■ 자원봉사종합보험 세부 보장내역

구분	보장담보	보장금액	주요내용
상 해 (21)	상해사망	2억	자원봉사 활동 중 우연한 상해 사고로 사망한 경우 약관에 따라 보상(15세미만 제외)
	상해후유장해	2억	자원봉사활동 중 우연한 상해 사고로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약관에따라 지급
	상해입원일당	5만	자원봉사활동 중 우연한 상해 사고로 병/의원에 입원하였을 경우 입원 1일에 대하여 보험가입금액을 보상(1회 입원 당 180일 한도)
	상해통원일당	3만	자원봉사활동 중 상해사고로 병/의원에 통원하였을 경우 통원 1일에 대하여 보험가입금액을 보상(30일 한도)
	자원봉사 배상책임	3천만	자원봉사활동 중 우연한 사고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쳐 법률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보상
	식중독보상금	1백만	음식물의 섭취로 인해 중독이 발생하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병원 또는 의원에 4일이상 입원 치료한 경우 보상(1회 입원당 120일 한도)
	화상수술비	1백만	자원봉사활동 중 약관의 화상을 입고 화상의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는 경우 약관에 따라 보상
	화상진단금(2도이상)	6십만	자원봉사활동 중 사고로 약관의 화상분류표에 정한 화상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보상(화상2도 이상)
	골절수술비	6십만	자원봉사활동 중 골절사고를 당하여 수술한 경우 골절분류표에 정한 골절로 수술시 보상
	골절진단금	6십만	자원봉사활동 중 상해사고로 약관의 골절분류표에 정한 골절로 진단 확정된 경우 보험 가입금액을 보상(치아 파절 제외)
	자연재해 상해사망	1억	자원봉사 활동 중 자연재해로 인하여 우연한 상해 사고로 사망한 경우 약관에 따라 보장 (15세미만 제외)
	상해흉터성형수술비	5백만	자원봉사센터 소속 자원봉사의자의 자원봉사활동 중 상해 사고로 치료를 받고 그 결과 안면부 성형 수술 시행시 보상
	성폭력범죄상해보상금	5백만	성폭력 범죄 피해 발생으로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은 경우 보상
	성폭력범죄보상금	1천만	약관 기재 성폭력 피해 발생시 보상
	의사상자 상해위험	2억	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신체 상해를 입은 경우 보상
	특정전염병보상금	1백만	특정전염병 분류표에 정한 전염병으로 치료시 보상
	폭력피해발생보장	1백만	약관에서 정한 범죄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신체 피해 발생시 보상
	강력범죄발생보장	1백만	강력범죄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 발생시 보상
	상해사고응급실내원진료비	3만	자원봉사활동 중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시 보상
	유괴·인신매매피해발생보장	1백만	약취와 유인의 죄에 의해 피해가 된 경우 보상
	교통상해입원일당	3만	교통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보상(1회 입원당 180일 한도)
배 상 (3)	주최자배상(영업배상)	5억	자원봉사센터 주관 행사, 워크샵 시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 손해
	구내치료비 (정신치료비 포함)	3천만	자원봉사센터 소속 자원봉사의자의 자원봉사활동 중 타인이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보상(정신치료비 포함 1백만 한도)
	자연재해 구내치료비	2천만	자원봉사센터 소속 자원봉사의자의 자원봉사활동 중 자연재해로 인한 상해의료비
15세 이상 1인 단가			760원(부가세포함)
15세 미만 1인 단가			440원(부가세포함)

1365자원봉사포털 회원가입 안내



자원봉사활동 실적 확인서 발급 안내



자원봉사 마일리지 포인트제

1365자원봉사 포털 시스템에 누적된 자원봉사활동 300시간 이상 자원봉사자에게 도에서 설치·운영하는 공공시설 이용시 자원봉사자에게 할인혜택 및 할인가맹점 할인혜택을 주고 자원봉사자들의 사기를 진작시킴으로써 자발적 자원봉사 참여를 유도

자원봉사 마일리지 포인트카드 개요

- 발급시기 : 연중
- 신청자격 : 1365자원봉사포털 시간 누적 300시간 이상
제주도·시 자원봉사센터등록자원봉사자
- 신청방법 : 본인방문, 우편, e-mail
 - 제주도·시 자원봉사센터, 시 자치행정과, 읍·면·동 주민센터
 - e-mail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 1365jejuvc@daum.net
제주시자원봉사센터 nanum3949@v1365.or.kr
서귀포시자원봉사센터 sgpnanum1365@daum.net
- 확인 및 발급 : 도·시 자원봉사센터
- 발송 : 등기 우편발송, 직접수령
- 제출서류
 - 일반 및 청소년 - 발급신청서, 신분증 또는 학생증, 반명함 사진 1매
 - 어린이
 - 발급신청서, 등본 1부(부모 입증 서류), 부모신분증, 반명함 사진 1매
 - 외국인
 - 외국국적동포 및 재외국민 : 발급신청서, 거소신고증, 반명함 사진 1매
 - 외국인 : 발급신청서, 외국인등록증, 반명함 사진 1매
- ※ 우편, e-mail인 경우
 - : 발급신청서, 신분증 사본 1부, 반명함 사진 1매(e-mail인 경우 스캔)
 - * 본인확인 후 신분증 사본 즉시 파기
 - * 주소지로 등기 우편 발송 및 본인 방문수령



■ 카드(예시)



■ 주차쿠폰(예시)

자원봉사 마일리지 포인트 적립 및 차감 기준

마일리지 적립 기준

- 누적 자원봉사활동 시간
300시간 이상인 경우
마일리지 적립
- 누적 자원봉사활동 실적
1시간당 200마일리지 적립
(적립한도 없음)
- 타 시·도 자원봉사 전출
등록 시 마일리지 자동 소멸

마일리지 차감 기준

- 자원봉사 마일리지 공공시설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사용 차감
 - 1마일리지 = 1원
- 차감예시
 - 제주아트센터 공연 관람료 10,000원
 - 관람료의 50% 마일리지 사용 가능 - 마일리지 5,000포인트 사용
 - 마일리지 5,000포인트 차감
 -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관람료 1,000원
 - 관람료 전액 마일리지 사용 가능 - 마일리지 1,000포인트 사용
 - 마일리지 1,000포인트 차감
- *공공시설 할인율에 따른 할인금액보다 보유한 마일리지가 부족한 경우는 마일리지 사용 불가

자원봉사활동 인정 기준

자원봉사 공통 인증기준

- 자원봉사활동 시간 인정은 1일 8시간 인정 원칙
 - 다만, 활동 목적상 8시간을 초과한 활동(예시 참조)이 불가피한 경우,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수요처 활동 계획을 검토하여 1일12시간 이내 인정 가능
 - 이 경우에도 수요처에서 활동 봉사자를 충분히 모집, 봉사자의 적정한 활동시간(8시간 이내) 준수 및 휴게시간 보장하도록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 ※ (예시) 1박 2일 장애인 캠프 프로그램 활동보조 봉사활동 등

○실제 봉사활동 시간에 한해 인증하는 것이 원칙

구분	출발	현장 도착	준비/교육	활동	식사	활동	평가	봉사활동 후 여흥	현장 출발	센터 등 도착	귀가
인증			활동인증대상시간								

※ 차량봉사의 차량운행 및 기타 봉사시간, 아동안전 지킴이 활동의 현장 순찰 활동시간 등 실제로 현장에서 활동한 시간을 인정 -다만, 이동시간은 원칙으로 불인정하되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자원봉사 등 국가적 재난극복을 위한 활동의 경우 2시간 이동시간 추가 인정

- 자원봉사활동 확인·실적 인정은 활동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원칙 (단, 1개월이 경과 하였더라도 이전 자원봉사활동 실적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있는 경우는 센터 판단에 따라 예외적으로 인정)
- 중·고생 자원봉사활동도 일반 자원봉사활동과 동일한 기준에서 인증원칙
- 교육목적에 따른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실시한 봉사활동의 인증, 반영정도 등은 학교 및 교육청에서 결정
- 공식적 인증기관의 별도의 인증없이 학교에서만 인증된 활동은 자원봉사센터 등에서 합산 관리하지 않음
- ※ 교육청 또는 학교의 학생 봉사활동 인정 기준에 따라 인정시간이 달라질 수 있음.
- 근무시간 중 봉사활동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발적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인증 가능
- ※ 영리추구와 관련된 행사 참여는 자원봉사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

○국군장병의 자원봉사활동

- 일과 이후, 휴무일, 개인 휴가기간 동안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발적으로 참여한 활동에 대해서는 같은 기준을 실적 인정
- ※ 센터와 사전협의 후 진행한 활동에 대해 인정 가능

○자원봉사단체 종사자의 자원봉사활동

- 회장 등 단체대표자(임원)의 단체유지 활동은 무급이라도 불인정

※ 단, 회원과 함께 실시한 자원봉사활동 등은 인정



자원봉사활동 시간인증 기준표

대 분 류	소 분 류	시간
사회복지 및 보건증진	급식소 봉사활동	6시간
	김장김치 만들기	8시간
	나들이 보조	8시간
	노인·장애인 수발	4시간
	놀이, 말벗	4시간
	도시락, 밀반찬, 물품 배달	6시간
	모금활동 및 후원 캠페인	4시간
	바자회	8시간
	보육, 음식조리(제과제빵 포함)	4시간
	빨래방 봉사활동	6시간
	사무보조, 장애인 직업재활작업장 보조	6시간
	영정사진촬영 및 제작지원	4시간
	재가세대 이사지원	8시간
	재가세대 행정 및 금융 업무 대행	2시간
	청소, 빨래, 주변환경 정리	4시간
	체육보조활동	4시간
	기타 사회복지분야 봉사활동	4시간
	호스피스활동	4시간
	의료수발 및 식사보조	4시간
	환자 접수 및 안내, 의료기구 및 보급품 정리 등 행정보조	4시간
	대기실 환경정리, 입원실 청소 및 화단정리	2시간
	물리치료관련 운동보조활동	4시간
	무료의료봉사	6시간
	헌혈자 접수 및 안내, 거리캠페인	4시간
	병동내 및 재가세대 대상 도서대출 및 회수	4시간
	이미용 봉사활동	6시간
	목욕봉사활동	4시간
지역사회개발·발전	집짓기, 수리(전기 및 보일러 수리, 도배장판, 도색 등)	8시간
	공동체 마을만들기, 주민자치활동	8시간
	농촌봉사활동	8시간
	꽃길 가꾸기, 놀이터 보수활동	6시간
	기타 지역사회분야 봉사활동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	환경정화활동	4시간
	불법홍보물 제거	4시간
	환경감시	4시간
	기타 환경보전(자연보호)분야 봉사활동	

대 분 류	소 분 류	시간
취약계층 권익보호 및 청소년육성·보호	문화체험, 청소년수련 지도	8시간
	청소년유해업소감시 및 정화활동	4시간
	청소년 보호 관련 캠페인 활동	4시간
	기타 청소년 육성·보호 분야 봉사활동	
교육 및 상담	평생교육관련 지도활동(예술, 컴퓨터, 언어, 직업교육 등)	4시간
	학교 교과목과 관련된 학습지도	4시간
	멘토링(멘토링사업 참가자) 활동	8시간
	기타 교육상담 분야 봉사활동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	여성차별개선활동, 아동인권보호활동	4시간
	북한동포돕기 활동 및 캠페인	4시간
	외국인 노동자 및 결혼이민자 지원활동	4시간
	기타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 분야 봉사활동	4시간
범죄예방 및 선도	범죄예방, 야간방법, 유해환경추방활동	4시간
	교도소, 감호소 위문(공연)활동	관내 4시간/타지 8시간
	아동 안전지킴이 활동	4시간
	기타 범죄 예방 및 선도 봉사활동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	교통정리, 주정차안내, 등하교 횡단보도 지도	4시간
	차량봉사(장애인, 노인, 환자 이송활동)	관내 4시간/타지 8시간
	부정주차금지 캠페인	4시간
	기타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 분야 봉사활동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	피해복구활동	8시간
	응급구조활동	8시간
	피해복구참여자 대상 급식활동	8시간
	대민안전캠페인 및 재난재해모금 캠페인	4시간
	피해지역 모니터활동 및 현장사무소 업무보조	8시간
	기타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 분야 봉사활동	
문화·관광·예술 및 체육진흥	문화재·관광 가이드, 문화해설	8시간
	문화예술시설 견학안내	4시간
	문화·예술·체육분야에서 (보조)지도자 활동	4시간
	문화, 예술, 체육행사 지원활동	8시간
	공연봉사활동	4시간
	문화재보호 캠페인	4시간
	문화재지역 환경정화, 유해문화 추방활동	4시간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	기타 문화, 관광, 예술, 체육 분야 봉사활동	
	지방정부 및 의회 모니터 활동	4시간
	의식계몽활동, 소비자보호활동	4시간
	상업주의 방송 감시활동	4시간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 분야 봉사활동	4시간
	기타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 분야 봉사활동	

《소식지 편집 마무리 뒷이야기》

한 해의 뒤편에서 소식지를 펴내며

또 한 해가 저물었다. 시위를 떠난 화살이 과녁에 다다를 때까지 빠르게 지나간 것처럼.....

올해도 코로나19는 극성을 부렸다. 우리 삶의 일상에서 마주한 끈질긴 사투 속에 결국 공존의 길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코로나19는 자원봉사 일감마저 빼앗아갔다. 1365 자원봉사 포털에 따르면 코로나 이전(2019년) 4백 2십만 명에서 코로나 이후 2백2십만 명으로 절반이나 줄어들었다.

사무국에서는 코로나에 묻혀 자원봉사 일감마저 이대로 멈출 수 없다는 판단 아래 급기야 몸부림(?)을 쳤다. 그 대표적 사례가 찾아가는 식료품 키트사업이다.

모두가 잘 알다시피 서귀포지역은 밥차사업이 체계적으로 잘 꾸려져 있다. 최소한 주중에는 어르신들이 밥 한 끼나마 제공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었으나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이마저도 멈춰 서귀포시자원봉사센터는 어르신들 가정으로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한 끼 식사를 이어갔다.

또한, 한정된 지방보조금의 한계에서 벗어나고자 중앙봉사센터 주민주도형 사업과 한국농어촌공사 공모사업으로 눈을 돌렸다. 사업비가 있으면 일이 따라오고, 덩달아 바빠지는 건 직원들이다. 특히 농어촌공사의 사업비 중 읍면지역 주거환경개선은 전문기술봉사자를 구할 수 없어 센터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이 직접 페인트 작업과 배관시설 등을 진행했다.

특히 하반기에 접어들 즈음 일상으로의 회복이 절정에 다다르면서 모든 행사가 일시에 쏟아지면서 덩달아 바빠진 건 자원봉사센터이다. 휴일 없이 출근하여 봉사자를 배치하는 일이 고달프지 아니하였다고는 할 수 없지만, 행사의 성공적 뒷받침을 위해 현장에서 묵묵히 봉사를 수행하고 있는 봉사자들과는 견줄 바가 아닐 것이다.

이제 한 해를 결산하며 꽃보다 아름다운 자원봉사자들의 걸어온 발자취를 이야기 형태로 엮어내려 나름대로 애썼으나 탈고 뒤에는 항상 아쉬움이 남는다.

지난해에도 그랬듯, 못다 이룬 소식은 내년을 기약하며, 여러분들이 올 한 해 흘린 땀방울에 엮인 이야기책을 봉사자님 한 분 한 분께 바칩니다.

2022년 12월의 어느 날

서귀포시자원봉사센터 편집자 강문상 외 직원 일동

사랑나눔

사랑과 봉사와 웃음으로 하나되는 서귀포시!
자원봉사로 만들어 갑시다.

